

VOL. 13

2023 | 겨울

충북학누리



괴산 애한정 후면



The Chungbuk Studies **Institute**

충북의 정체성 구현과 지역문화 창달을 선도합니다

충북학누리

Vol.13 | 2023 겨울

CONTENTS

01	충북의 문장 눈을 기다립니다-X마스에 부쳐 신동문	4	04	충북 역사 기행 월악산 원량선사 부도탑과 탐비의 수난 조혁연	27
02	한시로 만나는 충북의 문화 공간 한가함을 사랑하다, 과산 애한정(愛閑亭) 김용남	6	05	충북 문화예술 여행 윤형근, 단색(單色) 회화, 단색(丹色) 삶 김기현	40
03	오늘을 비추는 역사 속 인물 청주의 자주적인 여성학자 이사주당 유영선	15	06	충북학연구소 소식	49



〈충북학누리〉에 게재된 글과 사진의 무단복제를 금합니다

발행처 충북학연구소

발간 총괄 임기현 (충북학연구소장)

기획·편집 최병철 (충북학연구소 전문연구원)

정 민 (충북학연구소 위촉연구원)

통권 13호

주소 충북 청주시 상당구 대성로 102-1

홈페이지 <http://csi.cri.re.kr>

디자인 (주)픽셀즈

발행일 2023. 12. 30.

눈을 기다립니다

X마스에 부쳐

오늘밤 밤새도록
눈이 내려주십시오.
지붕이며 산이며 도시의 거리마다
밤새도록 밤새도록
눈이 내려주십시오.
한밤 내내 눈 속을 걷고만 싶습니다.

믿음도 없는 내가
어제는 몇장의 카드를
받아줄 이들의 마음씨와
반가워할 얼굴들을 생각하며
골라서 사 보냈습니다.

또 오늘 낮은
바쁘고 고된 일들을
저녁까지 참고 견딜 것입니다.
흰 눈이 내려서 소복한 길을
나 혼자서 한없이 걷기 위해서.
그러나 어딘가엔
사랑하는 손목을 잡은 두 사람이
내리는 눈길을 걷는
행복도 있을 것입니다.

*편집자 주

신동문(본명 건호(建浩))은 1927년 7월 20일 충북 청원군 문의면 산덕리(지금의 청주시 상당구 문의면 산덕리, 금강 상류 대청호변)에서 태어났다. 6.25전쟁 중 공군에 입대하여 제주도 비행장에서 복무하며 장편 연작시 「풍선기」를 쓰기 시작했다. 1955년 한국일보 신춘문예에 시 「봄 강물」이,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연작시 「풍선기」 중 한 편이 가작으로 입선되고, 1956년 조선일보 신춘문예에 연작시 「풍선기」(6~22호)가 당선되어 등단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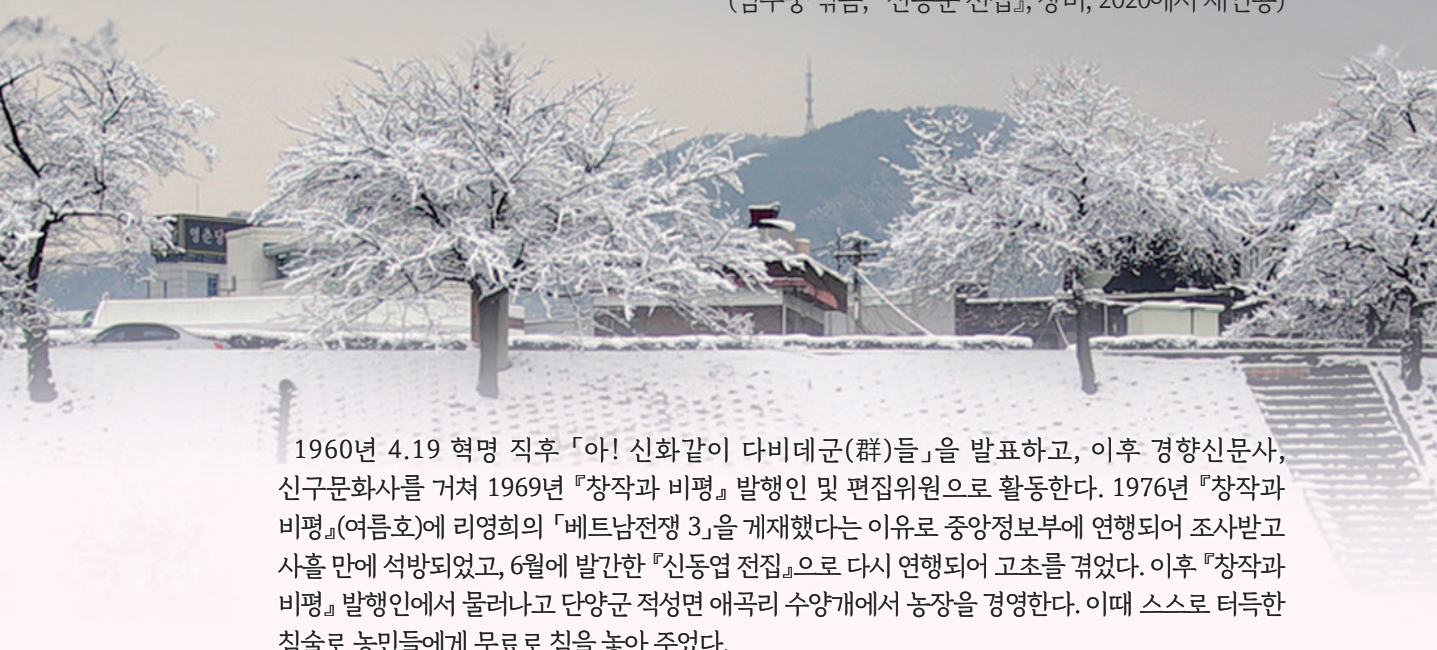
1957년 충북문화인총연합회(현 충북예총) 창립과 충북문인협회 설립을 주도했다. 1960년 초까지 고향에서 시작활동을 하며 청주의 고교생 문예반 연합동아리 '푸른문'의 학생들을 지도했다.

어려웠던 일, 분했던 일,
 가난했던 일, 괴로웠던 일,
 온 일년 그 하 많던 슬픔을
 이 밤만은 잊어버리고
 밤을 새워 걷고 싶습니다.

봄 가을 여름 또 겨울
 그 모든 계절을 소복이 덮고서
 소복이 소복이 덮고서도
 거기 살아 있는 목숨의 계절을
 새삼 깨닫게 하는 흰 눈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려주소시오.

오늘밤 한밤 내
 눈이 내려주소시오.
 지붕이며 산이며 도시의 거리마다
 한밤 내 한밤 내
 눈이 내려주소시오.
 밤새도록 눈 속을 걷고만 싶습니다.

『경향신문』, 1961. 12. 25.
 (염무웅 엮음, 『신동문 전집』, 창비, 2020에서 재인용)



1960년 4.19 혁명 직후 「아! 신화같이 다비데군(群)들」을 발표하고, 이후 경향신문사, 신구문화사를 거쳐 1969년 『창작과 비평』 발행인 및 편집위원으로 활동한다. 1976년 『창작과 비평』(여름호)에 리영희의 「베트남전쟁 3」을 게재했다는 이유로 중앙정보부에 연행되어 조사받고 사흘 만에 석방되었고, 6월에 발간한 『신동엽 전집』으로 다시 연행되어 고초를 겪었다. 이후 『창작과 비평』 발행인에서 물러나고 단양군 적성면 애곡리 수양개에서 농장을 경영한다. 이때 스스로 터득한 침술로 농민들에게 무료로 침을 놓아 주었다.

1992년 5월 담도암 진단을 받고, 1993년 9월 29일 병원으로 급히 후송되다 별세하였다.

한가함을 사랑하다, 괴산 애한정(愛閑亭)

김용남(충북대 강사)

명리를 멀리하고
산수에 몸을 맡기다



▲ 애한정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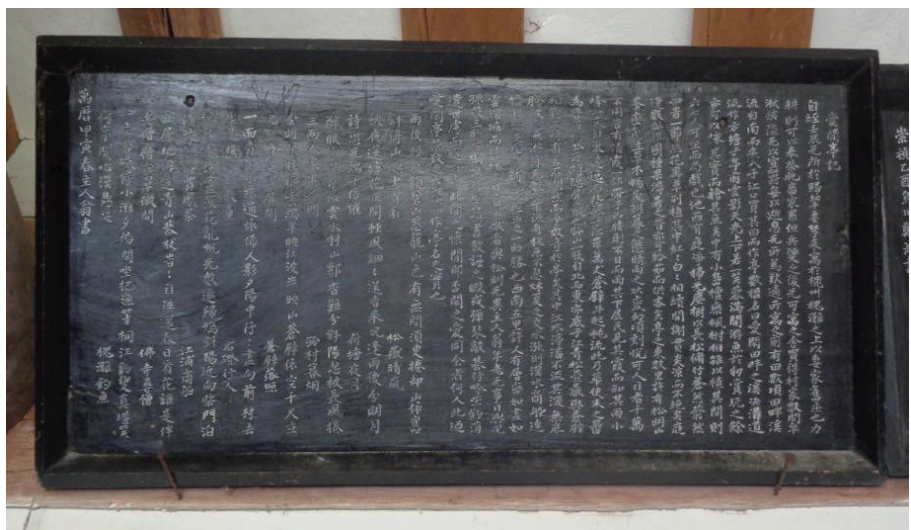
괴산군 괴산읍 검승리에 있는 애한정(愛閑亭)은 광해군 때 이곳에 낙향한 박지겸(朴知謙, 1549~1623)이 1614년(광해군 6)에 건립한 정자이다. 박지겸이 임란을 겪은 후 오랫동안 살던 모악산(母嶽山) 아래 마을을 떠나 괴산에 우거(寓居)하게 된 것은, 이곳이 바로 아내 부안임씨(扶安林氏)의 고향으로 괴탄(槐灘)의 상류에

처가의 옛 집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가 괴산에 은거한 실질적인 이유는, 광해군 집정 초기 혼탁한 정치현실 때문으로 보인다. 세 번 관직에 나갔지만 세 번 모두 2년 만에 체직될 정도로 강직한 그의 성품이 벼슬에서 물러나 재야의 선비로 살게 했으리라.

박지겸은 자가 익경(益卿)이고 호가 애한정(愛閑亭)이며 본관은 함양(咸陽)이다. 『동몽선습(童蒙先習)』을 지은 박세무(朴世茂, 1487~1564)의 손자이고 수안군수(遂安郡守)를 지낸 박응립(朴應立)의 아들이다. 임진왜란 때 강화도에 들어가 의병을 모집하여 선조 임금을 모신 공으로 창릉참봉(昌陵參奉)에 제수되었다. 이후 1594년에 내첨시 봉사(內瞻寺奉事)를 하고 1596년에 체직되었고, 1608년에는 선조의 국장에 참여하기도 하였다가 체직되었다. 1615년에는 상의원 별좌(尙衣院別坐)에 제수되었고 1617년 체직되었다. 이처럼 그가 관직에 오래 있지 못한 것은 대개 성품이 굳세고 바른 까닭이다. 사후 조부 박세무와 함께 괴산 화암서원(花巖書院)에 배향되었다.

이정귀(李廷龜, 1564~1635)는 <애한정기(愛閑亭記)>에서, “익경은 대대로 서울에 살았으니 당초에 사환(仕宦)에 뜻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지금은 변화한 것을 멀리하고 한가로운 것을 사랑하여 정갈한 일실(一室)에 거처하며 노년이 곧 다가오는 줄도 모른다.” 라고 하였다. 이어 “저 파리나 개처럼 얽치없이 애걸하고 세리(勢利)를 차지하고자 밤낮으로 세사(世事)에 속박되어 사는 자들은 진실로 한가로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 한가로움을 사랑할 겨를인들 어디 있겠는가.” 라고 하여, 박지겸이 세사에 얽매어 명리를 탐하는 이들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사는 자임을 강조하였다. 정호(鄭澥, 1648~1736) 또한 <제애한정시기첩후(題愛閑亭詩記帖後)>에서, 박지겸이 험난한 시대상황에서 혼란한 국사를 밝히고 용기 있게 물러나 산수에 몸을 의탁함으로써 스스로 지조를 지켰다고 하였다.

한가함을 사랑하는 것이 나와 같은 이 누구인가



▲ 박지겸의 <애한정기> 편액

박지겸은 땅이 외지고 아름다워 푸른 벼랑과 맑은 물, 높은 소나무와 긴 대나무의 빼어난 경치가 있는 괴산의 상류에 정자를 짓고 ‘애한(愛閑)’이라 하였다. 마땅히 쉴 만한 곳이 없음을 탄식하던 차에 마침 사는 집 앞에 있는 밭을 사서 정자를 지은 것이다. 그리고 밭가 시내에서 물을 끌어 정자 앞에 못을 만들어 활짝 핀 연꽃과 뛰노는 물고기를 구경하였다. 못 가운데 조그마한 섬에는 박달나무, 모감주나무, 단풍나무를 섞어 심었고, 못 서쪽 정원에는 소나무와 대나무를 심었다. 또한 이름 모를 꽃과 기이한 풀들을 가지런히 심었는데, 그 안에 붉고 흰 꽃들이 계속해서 피었다 지며 사계절을 통하여 끊이지 않았다. 박지겸은 자신이 지은 <애한정기(愛閑亭記)>에서, “높고 일이 없어 매일 아이들을 데리고 여기서 누웠다 일어났다 하며 글을 읽고 가르치는 여가에 거문고를 타거나 바둑을 두었고, 혹은 시를 읊조리며 걸거나 앉아서 낚시를 즐기기도 하면서 세상의 근심을 없애며 한평생을 보내니, 이 사이의 회포가 한가한가 한가하지 않은가? 한가함을 사랑하는 것이 나와 같은 이 누구인가?” 라고 하였다.

한편 박지겸은 애한정에 대한 기문을 부탁할 생각으로 제일 먼저 이호민(李好閔, 1553~1634)의 집을 찾았다. 이호민은 자가 효언(孝彦)이고 호가 오봉(五峯)·남곽(南郭)·수와(睡窩)이며 본관은 연안(延安)이다. 유희춘(柳希春)의 문인으로 이항복(李恒福)과 교유하였으며 박지겸이 괴산으로 이사하기 전까지 오랫동안 이웃 마을에 살았던 벗이다. 박지겸이 이호민에게 애한정에 대한 자랑을 늘어놓으며, “그대는 스스로 한가하지 않은데 어찌 다른 사람의 한가로움을 알 수 있는가? 스스로 한가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의 한가함을 말할 수 있겠는가?” 라고 하였다. 이에 이호민은, “대저 한가로움은 마음 쓰는 바가 없으니 일이 있어도 일이 없는 듯한 것을 말한다. 내가 만일 한가하면 나는 나의 한가함을 알지 못하나 다른 사람은 나의 한가함을 보고 그것을 사랑한다. 그대가 정자에 이름붙인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해 뜻을 일으켰다면 가하나, 만일 스스로를 위한 것이라면 불가하다.” 라고 하였다. 이어 “‘한한(閑閑)’으로 고쳐 한가함을 한가하게 여기면 이것이 진정한 한가함이니, 어찌 반드시 맑고 깨끗한 경치와 산수의 사이에 나아가서야 한가함을 완미하겠는가?” 라고 하였다. 이호민의 <한한정기(閑閑亭記)>에 있는 이야기이다.

이처럼 이호민이 애한정을 ‘한한정(閑閑亭)’으로 고칠 것을 제안하자 박지겸은 다시 이정귀에게 기문을 요청하였다. 이정귀는 <애한정기>에서, “아침에는 해 뜨는 것에서 한가롭고 저녁이면 달뜨는 것에서 한가로우며, 봄에는 꽃을 보며 한가롭고 겨울에는 눈을 보며 한가로우며, 거문고를 타면서 그 흥취를 사랑하고 낚시를 드리운 채 그 자적(自適)을 사랑하며, 다닐 때는 시를 읊고 누워서 책을 보며, 높은 곳에 올라 먼 곳을 조망하고 물가에 다다라 노니는 물고기를 구경하는 등 어떠한 경우이건 모두

한가로우니, 사랑한다[愛]는 것으로써 정자 이름을 짓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사랑해 마지않아 마침내 스스로 자기가 한가로운 줄 모르는 경지에 이르면 ‘한한(閑閑)’의 뜻 또한 그 가운데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였다.

이호민과 이정귀의 기문을 받은 박지겸은 이번에는 권득기(權得己, 1570~1622)를 찾아간다. 권득기는 자가 중지(重之)이고 호가 만회(晩悔)·거원자(居元子)이며 본관은 안동(安東)으로 박지겸과는 사돈지간이다. 권득기의 아들 탄옹(炭翁) 권시(權誥, 1604~1672)가 바로 박지겸의 아우 박지경(朴知警)의 사위다. 박지겸은 애한정에 대한 자랑도 자랑이지만, 특히 이호민과 이정귀 두 사람의 기문을 보여주고 권득기의 생각을 듣고 싶었던 것이다.

권득기는 <애한정후기(愛閑亭後記)>에서, “오봉은 대개 한가함은 진실로 나에게 있는 것이고 사랑하는 것은 오히려 밖이라 하여, 어르신으로 하여금 그 한가함을 한가하게 여기라는 것이고, 월사는 오직 사랑하는 자만이 능히 한가하다 했으니, 어르신으로 하여금 사랑하는 데서 시작하여 끝내 스스로 한가하게 하고자 한 것입니다.”라고 하여 오봉과 월사의 기문에 담긴 뜻을 말하였다. 이어 “어르신께서 한가함을 차지한 복은 대개 오래 되었습니다. 처하여 은거하면 푸른 산도 등지지 않고 흰 갈매기도 와서 친압할 것이고, 시와 술과 거문고와 바둑은 모두 한가함을 도울 것입니다. 나아가 관리가 되면 비록 관아의 장부와 문서에 바쁘고 먼지 속에 뛰어들어도 속마음의 한가함은 절로 이와 같을 것입니다. 어르신이 이것을 얻는 데 반드시 방법이 있습니다. 벌레의 팔과 쥐의 간 같은 하찮은 것이라도 읊조리는 데 사용하고, 시비곡직(是非曲直)을 세상에 맡기고 괴념하지 않으면 세상의 영욕과 득실이 어찌 어르신의 마음에 누를 끼치겠습니까?”라고 하여 자신의 생각 또한 덧붙였다.

애한정팔경과 애한정팔경시 박지겸은 애한정팔경(愛閑亭八景)을 정하고 팔경시를 지어 애한정의 아름다움과 함께 자신의 삶의 지향 및 자세를 적극적으로 노래하였다. 애한정팔경은 1경부터 8경까지, ‘송악청람(松嶽晴嵐)·하당야월(荷塘夜月)·고촌모연(孤村暮煙)·창벽낙조(蒼壁落照)·석등행인(石磴行人)·강포상박(江浦商舶)·불사심승(佛寺尋僧)·괴탄조어(槐灘釣魚)’이다. 송악(松嶽)·하당(荷塘)·창벽(蒼壁)·괴탄(槐灘) 등 앞의 두 글자는 애한정 주변의 지점이나 지명을, 청람(晴嵐)·야월(夜月)·낙조(落照)·조어(釣魚) 등 뒤의 두 글자는 애한정 주변 경치의 상태나 경치를 향유하는 행위를 드러낸다. 모두 애한정과 그 주변의 아름다운 모습이자 그것을 향유하는 박지겸의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비온 뒤 가벼운 산기운이 푸른 산을 감싸니	雨後輕嵐鎖碧山
질푸른 산 빛이 보일 듯 말 듯.	葱籠山色有無間
잠깐 사이에 걸쳐 산이 전과 다름없으니	須與捲却山依舊
산창에 기대어 온종일 바라보네	斜依山牕盡日看

박지겸의 <애한정팔영(愛閑亭八詠)> 중 ‘송악의 맑은 날 산기운[松嶽晴嵐]’이다. 송악은 송명산(松明山)을 말한다. 박지겸의 <애한정기>에 의하면, 송명산은 애한정 동쪽에 있다. 봉우리가 깎아지른 듯 우뚝 솟아 있고 초목이 무성하다. 아침저녁의 모습과 맑게 개었다가 비가 오는 모습이 순식간에 환상적으로 변하여 사람의 눈을 즐겁게 하는 것이 천만 가지로 다양하다. 때맞춰 푸른 노을 한 줄기가 산허리를 두르면 보이지는 않지만 비가 내리니, 그 아래 사는 사람들이 그 노을을 보고 비가 올 것을 안다. 이처럼 애한정에서 바라보는 송명산의 모습은 장관인데, 위 시는 비온 뒤 송명산의 맑은 이내의 아름다움을 형상화하였다.

못 위에 가벼운 바람 솔솔 불어오니	池面輕風細細吹
맑은 향이 유달리 서늘한 밤공기와 잘 맞누나.	清香偏與夜涼宜
천공이 다시금 밝은 달을 빌려주니	天公更借冰輪影
높은 잎과 활짝 핀 꽃에 달빛이 찬란하구나.	高葉繁花光陸離

이정귀의 <애한정팔영. 박익경을 위해 짓다(愛閑亭八詠. 爲朴益卿知謙作)> 중 ‘연꽃 핀 연못에 비친 달[荷塘夜月]’로 『월사집(月沙集)』에 전한다. 이정귀는 애한정과 그 주변의 경치를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박지겸이 명명한 팔경을 따라 시를 지었다. 박지겸은 시내에서 물을 끌어다가 정자 앞에 연못을 만들어 활짝 핀 연꽃과 뛰노는 물고기를 구경하는 것을 즐겼다. 밤에 못가를 거니는데 마침 솔솔 바람이 부니 연꽃의 맑은 향과 서늘한 밤공기가 더욱 어우러진다. 거기다 높이 솟은 연잎과 활짝 핀 꽃에 비친 달빛은 형용하기 어려울 만큼 찬란하고 아름답다.

석양이 홀연 동쪽으로 비끼니	夕陽忽東斜
높이 솟은 벼랑이 울긋불긋하구나.	峭壁生丹碧
유인의 바라봄이 다하지 않거늘	幽人看未闌
나그네 돌아갈 길 뭐가 그리 급한가.	行客歸何急

김지남(金止男, 1559~1631)의 <애한정팔영(愛閑亭八詠)> 중 ‘푸른 벼랑에 지는 낙조[蒼壁落照]’로 『용계유고(龍溪遺稿)』에 전한다. 김지남은 자가 자정(子定)이고 호는 용계(龍溪)이며 본관은 광산(光山)이다. 1627년 형조참의와 청풍군수를 거쳐 1630년 예조참의가 되었다. 현재 애한정에 걸린 시판에는 용계(龍溪)가 남창(南窓)의 시에 차운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남창은 김현성(金玄成, 1542~1621)을 말한다. 명필(名筆)로 이이(李珣)·성혼(成渾) 등과 교유하였고, 권필(權鞭)·김치(金緻)·김계휘(金繼輝)·이정귀(李廷龜) 등과 시를 수창하였다. 그리고 1603년 괴산군수가 되었다. 그의 문집 『남창유고(南窓遺稿)』에는 <애한정팔영>이 없고 현재 애한정에 시판이 걸려 있다. 석양녘 애한정에서 시내를 바라본다. 돌연 석양이 동쪽에 있는 푸른 절벽에 기우니 울긋불긋 어린 노을이 마치 단청을 입힌 것처럼 곱다. 보고 또 보아도 아름다운 모습에 주인은 냇을 놓고 한참동안 바라본다. 그러할 진데 나그네가 서둘러 돌아갈 길을 재촉할 필요가 있겠는가.

여울에서 늪은이 낚시하지만

灘上釣魚翁

물이 차가워 고기가 잡히지 않네.

水寒魚不出

물고기 잡히지 않는다 한탄하지 마시게

魚不出莫嘆

반계에 옥이 있음을 알 것이니.

知有磻溪玉

이호민의 <한한정팔영. 박익경을 위해 짓다(閑閑亭八詠. 爲朴益卿賦之)> 중 ‘괴탄에서 낚시하다[槐灘釣魚]’로 『오봉집(五峯集)』에 전한다. 위 시는 이호민이 1614년 소춘(小春)에 자신의 처소인 수와(睡蝸)에서 지은 것인데, 현재 애한정에 걸린 편액에는 <애한정기>라는 제목의 기문 뒤에 붙여 있다. ‘반계(磻溪)’는 강태공(姜太公) 여상(呂尙)이 낚시를 하였다는 위수(渭水) 물가이다. 그는 이곳에서 낚시질하다가 문왕(文王)을 처음 만나 사부(師傅)로 추대되었고, 뒤에 문왕의 아들인 무왕(武王)을 도와서 은나라를 멸망시키고 천하를 평정하였다. 시인은 ‘괴탄’을 ‘반계’로 치환하여 이곳에서 낚시하며 소일하는 박지겸에게 훗날 조정의 부름을 받고 중용될 날이 있을 것이니 현재의 처지를 너무 한탄하지 말하는 위로와 희망을 전한 것이다.

선조의 뜻을
계승하는 아름다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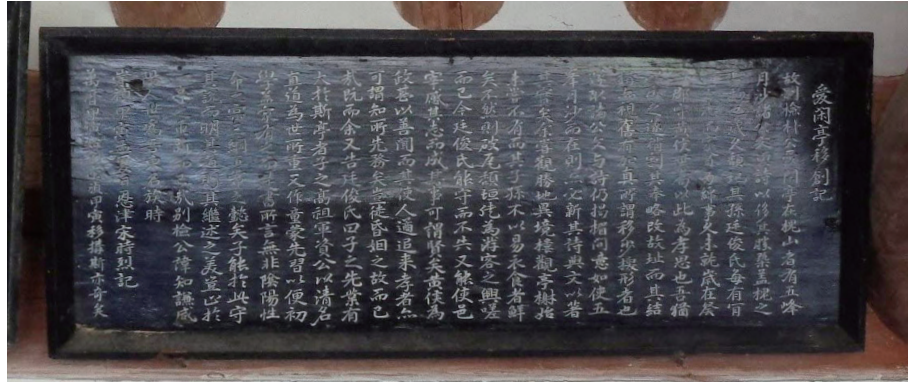
▲ 중수 후 애한정 모습

현재 괴산 검승리에는 두 개의 애한정이 있다. 아래쪽에 있는 작은 건물은 초기의 것이고, 위쪽에 있는 정면 6칸 측면 2칸 반의 팔작지붕 목조 기와 건물은 후대에 중수한 것이다. 송시열이 1674년에 지은 <애한정기(愛閑亭記)>에 의하면, 1614년 처음 건립된 애한정은 1673년(현종 14)에 박지겸의 손자 박정준(朴廷俊)이 당시 군수 황세구(黃世喬)의 도움을 받아 새로 지어 1674년에 지금의 자리로 옮겼다. 애한정은 이때 옛 터를 고쳐 얹어 옛날에 비하여 규모를 더하였고 여러 인사들의 문과 시를 판에 써서 걸었다. 그 후로도 애한정은 여러 차례 중수하여 오늘의 모습을 갖추었다.

송시열은 기문에서, 오봉(五峯)과 월사(月沙) 등의 글과 시가 있고 빼어난 경치를 자랑하는 괴산의 오랜 명소인 애한정이 세월이 흘러 쇠퇴하고 무너지자 손자 박정준이 매양 조상의 유업을 계승하려는 뜻을 지녔으나 집안이 가난하고 힘이 미약하여 오랫동안 뜻을 이루지 못했다고 하였다. 그러던 것을 계축년(1673)에 황 군수가 그의 효성스러운 뜻을 위해 마침내 급료를 쪼개어 일을 이루었다는 것. 송시열의 <계축일기(癸丑日記)>에, 1673년 10월 11일에 그가 괴산에 이르자 군수 황세구가 와서 기다리고 있었다고 하였다. 송시열은 그날 괴산 역촌(驛村)에서 묵고 다음날 화양동에 들어갔는데, 아마도 그때 애한정과 관련한 일을 자세히 듣고 이듬해 기문을 써준 듯하다.

이처럼 송시열은 박지겸의 손자 박정준이 조상의 유업을 능히 지키고 그 뜻을 잃지 않았던 점을 높이 평가하였다. 결국 박정준의 긍구(肯構)의 뜻이 읍재로 하여금 그 뜻에 감동하여 일을 이루게 하였다는 것이다. 끝으로 송시열은, 일찍이 승지의 기막힌 경치에 있는 누관과 정사를 보면, 자손들이 먹고 살기 위해 팔아먹거나 퇴락되어도

들보지 않아 한 유객으로 탄식할 뿐이었는데, 박정준이 능히 선조의 가르침을 지키고 그 도를 밝힌 즉 선조의 뜻을 계승하는 아름다움은 정자 하나를 다시 새롭게 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고 하였다.



▲ 송시열의 <애한정이참기> 편액

날아갈 듯 아득히 푸른 하늘에 솟은 정자	縹緲飛亭聳碧穹
올라보니 그 호기 무지개를 뚫을 만하네.	登臨豪氣太凌虹
언덕은 서로 엮혀 동남쪽이 활짝 트였고	邱原錯綜東南闊
강물은 부딪치며 위 아래로 통한다.	江漢澎磅上下通
월로의 시편 멀리까지 전하고	月老詩篇傳後遠
창옹의 한묵 지금도 공교하구나.	窓翁翰墨至今工
그대와 교분을 나누는 것도 즐거운 마당에	與君交誼權娛地
내가 어진 군수의 서로 권면하는 공에 힘입는구나.	賴我賢侯勸相功

김득신(1604~1684)의 <애한정운(愛閑亭韻)>이다. 1674년 애한정을 새로 짓고 계판(揭板)까지 한 후에 지은 것이다. 수련(首聯)에서는 호쾌하게 우뚝 서있는 애한정의 모습을, 함련(頷聯)에서는 동남쪽이 활짝 트여 아래로 흐르는 강물을 볼 수 있는 정자의 위치를, 경련(頸聯)에서는 월로(月老)와 창옹(窓翁)의 시편이 걸려 있는 애한정의 내부 모습을 드러내었다. 월로는 월사 이정귀 창옹은 남창 김현성을 말한다. 김득신은 이때 애한정에서 가까운 곳에 취묵당(醉默堂)을 짓고 시주(詩酒)로 즐길 때인데, 박지겸의 손자 박정준과 가까이 지내며 교분을 나누었던 것으로 보인다.

정자 아래 맑은 못에 먼 하늘 비치고	亭下清潭映遠穹
나루터에 긴 무지개처럼 다리 그림자 드리웠네.	渡頭橋影偃脩虹
현성은 술에서 깨었다 다시 취하며	陶樽賢聖醒還醉
세상길 동서로 꿈에도 오가지 않는구나.	世路東西夢不通
성긴 비 내리는 외진 바위에서 낚시하다	疎雨斷磯隨釣伴
석양에 돌아가자 뱃사공을 부른다.	夕陽歸艇喚篙工
흰 갈매기와 더불어 오래도록 한가하게 지내니	白鷗長與閑無事
만년에 정양의 공이 많구나.	暮歲唯多靜養功

박수검(朴守儉, 1629~1698)의 <애한정. 백곡의 시에 차운하다(愛閑亭. 次栢谷韻)>로 『임호집(林湖集)』에 전한다. 박수검은 자가 양백(養伯)이고 호가 만곡(晩谷)·임호(林湖)이며 본관은 의흥(義興)이다. 제천에서 태어나 어려서 조석윤(趙錫胤)·이영선(李榮先)에게 배웠고 1668년 40세에 송시열에게 수학하였다. 1672년 별시문과 병과에 합격 후 1682년 정천현감(定川縣監)이 되었고 1687년 7월 괴산군수가 되었다. 이후 1690년 의림지(義林池)에 퇴거하여 자호를 임호(林湖)라 하였다. 함련의 현성(賢聖)은 애한정의 주인 박지겸으로 그가 이곳 괴산에 은거한 후로는 꿈에서조차 세상길을 오가지 않았음을 말한 것이다. 오직 박지겸이 이곳에서 한 일은, 성긴 비를 맞으며 외진 바위에 앉아 낚시를 하다가 석양녘이 되어서야 집에 돌아가는 것. 이처럼 흰 갈매기와 벗하며 오래도록 일없이 한가하게 지내니 늘그막에 정양(靜養)의 공이 많다고 하였다. 정양(靜養)은 고요히 심성을 기르는 것을 말한다. 박지겸이 노년에 애한정에서 고요히 심성을 기르며 세상과 철저히 유리된 삶을 살았음을 강조하였다.



청주의 자주적인 여성학자 이사주당

유영선(동양일보 주필)

조선 최고의 여성학자 이사주당 2023년 11월5일(음력 9월22일)은 청주가 낳은 조선시대 최고의 여성학자 이사주당(師朱堂李氏, 1739~1821)이 타계한 지 202주년이 되는 날이다. **타계 202년** 11월15일 청주문화원 역사문화연구소가 주최한 세미나에서 <이사주당의 생애와 학문세계>에 대한 박용만의 발제가 있었다. 이날 발제 첫머리에 이사주당을 한눈에 알 수 있는 한시가 소개되었다. 석천 신작(1760~1828)이 지은 <유목천부인이씨묘지명(柳木川夫人李氏墓誌銘)> 중의 명(銘)이었다.

아름답도다. 부인이여! 옛 여사로다.
유학을 포괄하고 도법을 넓혔도다.
못사람에게 귀범을 보이시고 꽃향기 떨치셨네.
화려한 채색을 거두고 요사스런 찌꺼기조차 넘어섰네.
두 명검이 연진(延津)에서 합쳐지니 광기가 붉게 빛나네
당봉 기슭에 신령스런 자리 접쳤으니
높으신 유업을 돌에 기록하노라.

(신작 1760~1828 지음. 유목천부인이씨묘지명)

유학을 포괄하고 도법을 넓혔으며, 못사람의 귀범이 되었다고 찬탄 받은 이사주당. 신작이 사주당을 옛 여사(古女士)라고 부른 것은 요즘에 사용하는 명칭인 ‘다른 사람의 부인을 높여 부르는 호칭’인 여사(女史)가 아니라 여성선비라는 뜻이다.



▲ 이사주당 묘. 용인시.

사주당은 선비였다. 그리고 여성군자였다. 그가 어떤 삶을 살았고, 그의 삶의 깊이가 얼마나 깊고 넓었기에 조선 여성 최고의 학자이며 여사이며 군자로 불리는지, 청주에서 태어나 청주에서 학문의 기초를 닦고 완성한 이사주당에 대해 알아본다.

사주당이 유언으로 남긴 세 부장품

그는 세상을 떠날 때 세 가지를 자신의 무덤 속에 넣어 달라고 부탁했다.

청주 어머니가 안부를 묻은 편지 1축, 남편 유한규의 논성리(論性理) 1축, 손수 베낀 『격몽요결』(율곡 저서) 1권이였다. 사주당의 아들 유희는 세 가지 부장품을 상자에 담아 함께 부장하면서 “선비(先妣)께서 종신토록 사모한 것과 돌아가실 때까지 배운 것을 볼 수 있으니, 아녀자로 이다지 아름다움이 많은 이가 있었는지 알지 못하겠다”고 하였다.¹⁾

그는 왜 세 가지를 무덤 속에 넣어달라고 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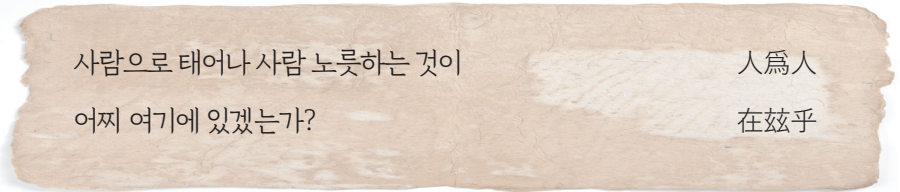
사주당은 평소 어머니와 정서적인 유대가 강했다. 혼인을 한 후 청주를 떠난 뒤에는 어머니와 지속적으로 편지를 주고 받았다. 그가 친정어머니의 편지를 무덤에 넣어달라고 한 것은 평소 고향인 청주와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 매우 컸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사주당은 당시 혼기로서는 다소 늦은 25세 나이에 용인에 살고 있던 유한규의 네 번째 부인으로 들어갔다. 당시 유한규는 46세로 부부의 나이 차이가 21세나 되었지만 사주당의 학문의 세계가 깊고 심오하자 부부관계를 넘어 학문을 토론하고 시문을 주고 받았다. 또 바둑에 심취하여 부부가 바둑을 두면서 일상의 재미를 나눴고, 부부가 떨어져 지내게 될 때에는 서로 편지로 주고 받으며 소식을 나누었다. 아마도 사주당은 사후에도 남편과 학문을 논하고 싶었던 것이리라.

사주당이 또 부장품으로 넣어달라고 한 것은 손수 필사한 『격몽요결』이었다. 격몽요결은 율곡이 글을 배우는 아동의 입문교재로 쓰기 위해 저술한 책이다. 사주당은 이 책을 손수 베끼며 학문의 자세를 다짐했던 순간을 기억하고 싶었던 것이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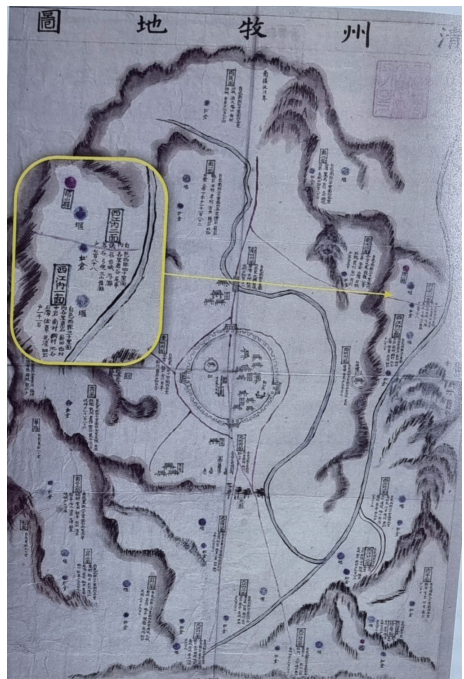
사주당이 유언으로 남긴 세 가지 부장품은 모두 학문과 관계되는 ‘글’이었다. 83세의 나이에도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그가 잡고 싶었던 것은 살림이 아니라 학문이었던 것이다.

1) 유희 『方便子文錄』 권2 <선비숙부인이씨가장>

**사람노릇엔
남녀 차이가 없다**



어린 여자아이가 길쌈을 하다 멈추고 문득 한 말이다. 불과 여섯 글자밖에 안 되지만 이 문장이 뜻하는 함의(含意)는 매우 크다. 이 말을 한 주인공은 최초의 태교서인 『태교신기』를 저술한 사주당이씨이다. 사주당이 살았던 18세기의 조선은 남녀의 역할이 엄격하게 구분되어 있던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인 사회였다. 이러한 시대 분위기 속에서 “사람으로 태어나 사람 구실을 하는 것에는 남자와 여자의 차이가 있을 수 없다”는 선언은 굉장한 자의식이자 깨달음이었다. 여자라고 하여 학문을 익히지 않고 바느질과 길쌈으로 한 평생을 사는 것은 참다운 사람 구실이 아니라는 사주당의 깨어있는 의식, 곧 평등에 대한 자각을 인식한 선언이라고 할 것이다.



사주당은 영조 15년(己未, 1739) 12월5일 청주 서면 지동에서 태종의 서자인 경녕군 이비의 10대 손 이창식(李昌植)과, 좌랑을 지낸 강덕언의 딸 진주 강씨 사이에서 2남5녀 중 딸로서는 막내로 태어났다. 밑으로 4살 터울의 남동생이 있었다. 고조 이천배가 노론의 영수인 송시열의 막내동서로 사주당의 가문은 노론에 속했다. 사주당의 집안이 청주에 정착한 것은 고조 때로 보인다. 집안은 넉넉하지 않았지만, 조부 이함부는 사주당의 학문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었다. 할아버지와 아버지는 모두 관직에 나가지 않았으나, 조용하고 밝은 선비의 덕성을 지녔다.

▲ 1872년 청주목 지도의 청주시 서면 일대.
사주당이 태어난 곳으로 추정.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사주당은 어릴 때부터 총명하고 단정하면서 길쌈과 바느질에 능하였다. 그러나 길쌈하는 틈틈이 가례(家禮)와 여사서(女四書)를 외우고 익혀서 나이 15세에 이미 경·사·자·집(經·史·子·集)을 두루 섭렵하여 높은 학식을 가졌다.

그가 여성의 한계를 넘어 학문에 전념할 수 있었던 건 형제의 반대에도 딸의 공부를 보호해준 아버지 이창식의 후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아버지 이창식은 통덕량이란 벼슬을 한 사람으로, 사주당에게 소학, 주자가례, 여사서(女四書) 같은 것을 공부하도록 독려했다. 1년 뒤 논어, 맹자, 중용, 대학, 시경, 서경으로 진도가 나가자, 오빠가 그런 걸 배우지 말라고 충고했다.

그러자 아버지는 “그러지 말아라. 옛 성현의 어머니 중에 누가 글을 몰랐더냐”며 영특한 딸이 지식을 얻을 기회를 갖도록 밀어주었다. 사주당은 동양 철학사상 뿐만 아니라 의학, 천문학, 산술학, 음악에도 조예가 깊었으며, 문중의 남자들보다 앞섰다는 얘기를 듣게 된다. 충청도 선비들이 그 학식에 감탄하고 자문을 구했다.

1757년 19세 되던 해에 부친을 잃었다. 사주당은 3년 내내 아버지를 생각하며 고기를 먹지 않고 겨울에도 솜옷을 입지 않았다. 옛 교훈을 마음에 지니고 행동했다. 부친상을 치르고 어려운 살림을 꾸려가느라 그녀는 혼기를 놓쳤다. 그는 25세까지 ‘내훈’이나 ‘여범’같은 여훈서(女訓書)를 편찬하고 유학 경전을 체계적으로 연찬했다. 사주당의 학문은 소문이 났다. 영조의 경연관 송명흠이 사주당에 대해 친척이 아니라 대면하지 못함을 한스럽게 여겼다고 한 것은 이 시기로 보인다.

25세에 네 번째 부인으로 들어가다

사주당은 25세의 나이에 유한규(1718~1783)의 사취(四娶) 부인이 된다. 소론 가문인 유한규의 첫 번째 부인은 해주오씨로 인조 대 삼학사의 한 사람인 오달제의 증손녀로 25세의 나이에 죽었고, 두 번째 부인은 평강전씨로 풍천부사 전명좌의 딸인데 유한규가 죽은 줄 알고 딸 하나를 남기고 자결했다. 세 번째 부인은 선산김씨로 아들 유흔을 남기고 죽었다.

유한규는 진사시를 거쳐 형조정랑의 벼슬을 지냈으며 경전에 능통한 학문하는 선비로서의 면모를 갖춘 사람이었다. 유한규는 세 번이나 아내를 잃었고 연로한 어머니를 모시고 있었지만 이씨 처녀의 학행(學行)이 높다는 소문을 듣고 혼인을 청했다. 손아래 동서들은 모두 명문거족 출신이고 나이는 그녀보다 갑절이나 많았다. 경전과 사서에 통하고 지적인 욕구가 강했던 사주당에게겐 격(格)을 갖춘 시가와 유한규의 학문이 나쁘지 않은 조건이었다.

사주당은 유한규와 혼인을 하고 용인의 시집으로 들어간다. 그리고 까다롭고 분노가 많기로 소문난 병석의 시어머니 수발에 최선을 다하고 1남1녀 아이들을 보육하고

가르치는 일에 힘썼다. 유한규는 사람 됨됨이를 보면서 사주당에게 감동해 부부의 소중함을 나누는 것은 물론, 사주당과 학문을 토론하고 일상을 나누는 지기가 되었다. 성리학적 심성론과 교육론에 의거한 『태교신기』의 성리학적 지식은 남편과 끊임없는 토론을 통해 이루어졌다. 남편 유한규는 학문에의 열망으로 가득 찬 사주당을 적극 지지했다. 그들의 일상엔 학문세계의 심오한 이치를 토론하고 각자의 생각과 감정을 시로 짓고 화답하면서 지기로 지냈다.

유희의 「문통」에는 부친 유한규의 「애오공시집」이 실려 있는데 이 중에 부부가 주고 받은 시가 ‘규합창수록’이라는 이름으로 수록되어 있다. 전체 8제 9수가 남아있다.

부부는 바둑도 즐겨서 사주당은 네 살배기 아들에게 젓 먹이는 것조차 잊을 정도로 바둑에 심취하기도 하였고, 부부가 떨어져 지내게 되면 서로 편지를 주고 받으면서 소식을 나누었다.

사주당은 1남3녀의 자녀를 두었는데 자식을 가르치는 일에도 정성을 다 했다. 아이들을 키우면서 사주당은 어렸을 때 추억들을 그리워하게 된다. 자신의 정체성이나 자아존중감은 어렸을 적 고향인 청주에서 어머니로부터 받은 교육으로 형성이 된 것이기 때문이다. 사주당은 친정어머니와 자주 편지를 주고받으며 그리움을 달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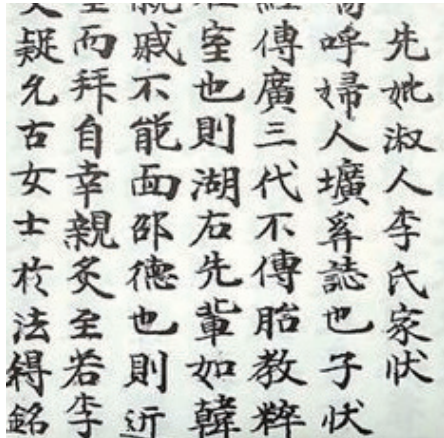
그러나 부부로 산 지 20년 만에 유한규는 66세의 나이로 세상을 뜨게 된다. 이때 사주당의 나이는 45세였다.

학문과 자녀 교육에 매달리다

사주당은 남편을 사별하고 홀로 서야 했다. 그는 전처의 아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다며 어린 4남매를 데리고 분가를 한다. 워낙 가난했던 살림이라 가져갈 것이 아무 것도 없었다. 자녀들이 기억하는 어머니는 호미도 없이 손으로 밭을 일궈고 솟불도 없이 길쌈을 했다. 손이 갈라져 터지도록 새끼를 꼬고 거적으로 문을 삼아 소금을 구워서 먹을 것을 얻었다. 하지만 학문을 향한 열정은 그칠 줄 몰랐고, 이 열정은 자녀들의 교육으로 옮겨졌다.

어머니는 부지런히 일해서 먹을 것을 구했다. 변변한 호미도 없으면서 밭을 일궈고, 솟불도 없으면서 길쌈을 했으니 그 고통을 알고도 남음이 있다. 손이 갈라져 터지도록 새끼를 꼬고 새끼로 돌쩌귀를 삼고 거적으로 문을 삼아 소금을 구워서 조강의 먹을 것을 얻었으니 심하도다. 그 피로함이어!

-유희 「선비숙부인이씨가장」



▲「선비숙부인이씨가장」

사주당에 대한 서술에서 빠짐없이 등장하는 것 중 하나가 ‘교자녀(敎子女)’이다. 생계를 위한 고단함 속에서도 사주당은 직접 교재를 만들어 딸들을 가르쳤다. 교재는 ‘가편여집’이라는 책으로 여자가 갖춰야 할 지혜나 역할을 서술한 책으로 전통적인 교훈서에서 가려 뽑은 것으로 보인다. 아쉽게도 책은 전해지지 않는다.

어머니는 두 누나에게 주려고 계명잡을 써놓고선 내용을 쓰지 못하고 있었다. 이것을 본 어린 유희는 글씨를 쓰면서 말하기를 “답이 올 때 일어나 선(善)을 행하는 자는 순(舜)같은 사람이요, 답이 올 때 일어나 부지런히 악(惡)을 행하는 자는 도척과 같은 부류이다”라고 했다.

-「유희의 전기」

머느리 권씨가 남편 유희의 전기를 정리하면서 유희의 총명함을 표현하고자 한 글이다.

생활은 궁핍했지만 자녀들은 굶주림과 빈곤 때문에 공부를 멈추지 않았다. 사주당은 딸들에게 ‘아궁이에 불때는 일’을 시키지 않았고, 아들에게는 식량을 싸서 스승을 찾아 멀리 보내기까지 하면서 교육에 열성을 보였다. 그의 열정으로 세 딸은 글을 익혔고, 문자를 통한 자기표현의 세계를 갖게 되었다. 세 자매도 학덕이 뛰어났다. 장녀는 병절랑 이수목에게 시집갔고 둘째는 진사 이재녕에게, 막내딸은 박윤섭에게 출가했다. 딸들은 훗날 사주당의 저서 『태교신기』에 발문을 쓴다.

아들에게는 출세를 보장하는 과거보다는 전문 학자의 길을 걷게 했다. 어머니의 바람대로 유희는 실학자이자 음운학자로 성장하여 『언문지』와 1백 권에 달하는 『문통』(文通) 등 방대한 저술을 남겼다.

사주당은 혼자의 노동으로 생계를 꾸려가면서도 재산을 불렸다. 아마도 이자를 불리거나 물건을 사고팔아 얻은 이익일 것이다. 사주당은 이 돈으로 쇠락한 친정을 돌보는 데 애를 썼다.



▲ 유희의 『언문지』. 실학박물관



▲ 유희의 『문통』. 한국학중앙연구원



▲ 유희의 저작: 경학, 천문, 지리, 역사, 의학, 태고 한글 등. 한국학중앙연구원

어머니는 이식으로 재물이 모아지자 외조부 선영 안의 밭을 재물을 주고 되샀다. 다시 이식하여 서너 해 만에 재물이 모아자 이종 조카에게 부탁해서 친정집을 위해 후사를 세우도록 했다. 다시 이식해서 서너 해 만에 재물이 모이게 되자 외손 가운데 귀한 상을 가진 자에게 유언해서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라도 제수를 올릴 수 있게 했다. 어머니는 재간이 있는 데다가 또한 일에 순서를 잘 지키셨던 것이다.

-유희 「선비숙부인이씨가장」

친정에 양자를 세워 대를 이었으나, 그 마저도 후사가 끊기자 신주를 땅에 묻고 상(喪)에 임하는 자세로 그해 내내 소복을 입고 지냈다(柳木川夫人李氏墓誌銘).

사주당은 결혼 초기엔 현자를 희구한다는 의미로 ‘희현당’이라고 당호를 지었다. 그러다가 주자를 스승으로 삼는다는 의미로 ‘사주당’으로 바꿔 자신의 학문적 특색을 분명하게 했다.

“송전이 아니면 익히지 말라.”

2000년대 초반 유희의 『문통』이 후손에 의해 발견돼 조선 후기 국어학자로 알려진 아들 유희가 어머니 사주당이 자신에게 했던 말을 기록했다.

‘송전’은 송나라 때의 경전에 대한 주석을 말한다. 이것은 당시 소론 중심으로

연구되고 있던 양명학을 직접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남편의 가문이 소론계였던 점을 생각하면 이사주당의 곳곳한 학문자세를 엿볼 수 있다. 이사주당은 현모양처라는 굴레를 뛰어넘어, 남녀구분 없이 자신의 의지와 노력에 의해 공부하는 선비로서의 삶을 살았음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그녀의 학문이 소문이 나자, 도정 이창현과 세마 강필효는 심부름꾼을 보내 글 속의 의문사항을 여쭙고 상사 이면눌과 산림 이량연은 집으로 와서 스승으로 모시며 친히 가르침을 들었다(도정, 세마, 상사, 산림은 관직명).

**『태교신기』를
완성하다**

사주당은 1800년 세계에서 최초로 태교전문서 『태교신기』를 완성한다. 4남매를 낳고 키운 경험과 그의 학문이 결합돼 말년이 돼서야 완성이 된 것이다. 사주당의 나이 62세 때의 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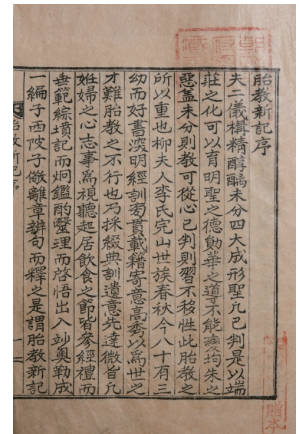
이사주당은 태교신기 첫머리에서 책을 쓴 포부를 밝혔다.

“내가 일찍 두서너 아기를 가져 낳아 기름에 시험한 바를 기록하여 모든 딸에게 보인다. 감히 멋대로 스스로 글을 지어 남의 눈에 자랑함이 아니라, 오히려 ‘예기의 내칙’에 빠진 점을 보완해야 하기에 ‘태교신기’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쓰고 있다.

유학을 숭상하던 시절, 경전에 빠진 부분을 더하기 위해 책을 썼다는 포부는 사주당만이 할 수 있는 자신감이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대단한 것은 스스로 경험하고 실험한 것을 책으로 묶었다는 점이다.



▲ 『태교신기』(한국학중앙연구원)



▲ 『태교신기』 내지
(한국학중앙연구원)

『태교신기』는 요즘 책의 내용을 살펴봐도 전혀 비과학적이거나 고루하다고 평가할 부분이 없다. 사주당은 태교가 아이 교육의 출발점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개인 수양 ‘수신(修身)’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태아와 어머니는 혈액이 이어져 있어 어머니의 성품과 건강함과 총명함이 모두 태아에게 전해지기 때문에 어머니는 매사 삼가야 한다”고 지적했으며, “음악소리와 맛있는 음식은 예로써 절제해야 하는데, 군자는 그 가르침을 미리 해야 하기 때문이다”라고 썼다. 스스로 절제하며 수양하는 ‘수신’의 태교가 필요함을 강조한 말이다.

사주당은 특히 남편의 역할을 강조했다. 1장 첫머리에서 “스승이 10년 가르침이 어미가 잉태하여 열 달 기름만 같지 못하고, 어미 열 달 기름이 아비 하루 낳는 것만 같지 못하다”며 “어머니의 열 달 기름이 아버지의 정심만 같지 못하다”고 부성을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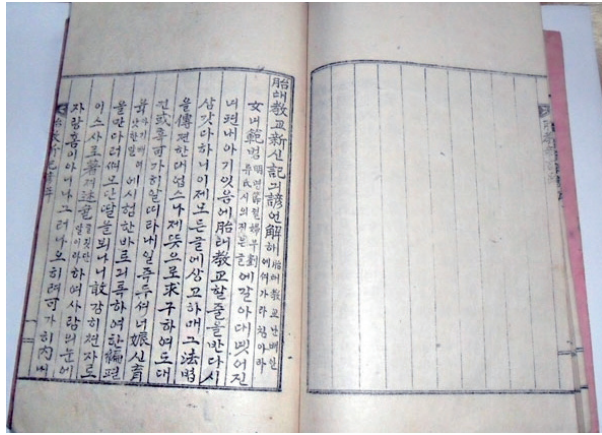
조선 중기의 고루한 시대에 태교가 여성만의 일이라는 편견을 깨고 부부와 가족이 함께 하는 일이라는 개념으로 남성의 태교를 강조한 것은 사주당이 시대를 뛰어넘은 식견을 지니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사주당의 『태교신기』는 1800년(정조 24년) 한문으로 쓰였지만 이듬해 아들 유희가 한글로 풀어 썼다. 유희는 한글로 옮겨 쓴 『태교신기』의 발문을 통해 어머니 사주당의 말을 전했다.

“일찍이 시험 삼아 너희 네 자녀를 임신했을 때 태교를 해보았더니 결과적으로 너희들의 형체와 기질이 크게 어그러짐이 없었다. 이 책을 집안에 전함이 어찌 태교에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유희가 풀어서 쓴 한글 『태교신기』가 사람들에게 알려진 것은 1936년 정인보가 이를 발굴하면서부터다. 정인보는 태교신기에 대해 “자기에게 실험하여 몸소 경험하신 것으로서 헛되이 이치에만 의존해 이론을 내세워 말하는 것과 다르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사주당의 『태교신기』의 특징은 임신한 어머니만을 중요시하지 않고 주변사람들의 참여를 중시한다는 점이다. 임신과 출산이 어머니 개인의 일이 아니라, 아버지와 가족공동체, 사회공동체가 함께 해야 한다는 점이다.



▲ 『태교신기』(한국학중앙연구원)

**여성의 한계를 초월한
조선 최고의 여성학자**

이사주당은 『태교신기』가 발견된 20세기 초에 조명되기 시작했지만, 그는 조선 최고의 여성학자였고 여성군자였다. 그가 저술한 『태교신기』로 사주당의 이름이 알려졌지만, 그러나 『태교신기』의 큰 반향이 오히려 이사주당의 삶의 궤적과 여성지식인으로서의 참모습을 인식하는데 방해가 되는지도 모른다.

문통을 완역하고 사주당을 연구한 박용만은 “『태교신기』라는 저술이 오히려 이사주당의 큰 모습을 가리는 장애물일 수도 있다”며, “이사주당은 태교신기로 국한할 수 있는 인물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큰 학자”라고 말한다. 사주당은 여자가 아닌 인간으로서의 자각(自覺)과 자득(自得)을 통한 학문적 성취를 이뤘으며, 스스로의 의지와 노력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여타 조선시대 여성지식인과 분명하게 구별된다는 것이다.²⁾

사주당은 말년에 3년정도 고질병을 앓다가 1821년(순조 21년) 9월22일, 한강 남쪽 서파의 임시로 살던 집에서 숨을 거둔다. 향년 83세였다. 그는 유언으로 『태교신기』를 제외하고는 모두 태우라고 하면서 무덤에 세 가지를 묻어달라고 했다. 이듬해인 정묘년 3월, 용인의 모현촌 당봉(현 모현면 왕산리)아래 장례하고 남편 목천공 유태규의 묘를 이장해 합장했다. 이 묘는 그동안 알려지지 않다가 1999년에 발견돼 묘비명을 통해 사주당 부부의 묘소임이 알려졌다.

사주당은 죽은 후 ‘여중유현(女中儒賢)’으로 불리며 그에 대한 서술을 기록하는 작업이 뒤따랐다. 아들 유태희는 어머니가 떠난 바로 다음해에 어머니의 가장(家狀)을 썼다. 그리고 한문으로 씌어진 『태교신기』를 누구나 읽을 수 있도록 한글로 토를 달고 풀어놓은 언해본을 냈다. 신작은 이 가장을 바탕으로 묘지명을 쓰고 『태교신기』의

2) 박용만 청주문화원 청주역사문화연구소 역사세미나 발제 『이사주당의 생애와 학문세계』

서문을 썼다. 두 딸은 어머니의 저술에 발문을 썼다. 또 유희의 부인인 며느리 권씨는 유희의 전기를 써 사주당의 평소 생활과 발언이 알려지도록 했다.

경전 지식의 토대 위에 자신의 경험을 접목시켜 독자적인 지식세계를 구축한 사주당.

그의 일생은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자신의 길을 가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보여준 삶이었다.

그는 평생 고향인 청주와 친정어머니를 그리워하며 살았다. 25세까지 살았던 청주는 그의 학문의 기초가 세워지고 완성이 된 곳이다. 청주사람들이 그를 기억하고 기려야 할 이유이다.

유희의 『문통』에 실린 사주당의 시에서 고향을 그리는 마음을 절절하게 느껴진다.

한 점 외론 등불에 비친 모습은 옛적 얼굴인데	孤燈一點昔時面
어미와 자식이 떨어져 소식 또한 막혔구나.	母子他鄉魚鴈阻
멀리 남쪽을 바라보지만 산으로 첩첩이 가려있어	遠望向南山疊疊
하늘을 우러러 달에게 정을 담은 몇 마디 문노라	仰天問月含情語



▲ 숲속마을 태교정원. 용인시.

**이사주당, 그의
본명은 여전히 '미상'**

이사주당은 저술가 이전에 그 삶이 더 빛났던 사람이다. 그러나 아쉽게도 그는 조선 최고의 여성학자이었음에도 이름이 전해지지 않는다. 그를 부를 때는 당호를 이용해 '이사주당' 또는 '사주당 이씨'라고 부를 뿐이다.

생몰년(1739-1821)이나 당호(회현당, 사주당)나, 남편의 이름(유한규), 아버지의 이름(이창식), 아들이름(유희)까지 사주당의 주변 사람들은 모두 기록돼 있지만, 당사자인 사주당 이씨는 그냥 이씨일 뿐이다. 그래서 그를 인물사전식으로 정리하면 “사주당 이씨. 청주 출생. 본명 미상”으로 적을 수밖에 없다.

‘세상의 절반’이 여성이지만, 우리 역사 속에서 여성의 이름은 존재하지 않는다. 여성은 호적에 이름이 오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단지 여(女)로만 표기되다가 결혼을 하면 혼인 전 여성이 살았던 출신 지역이나 혼인 후 남편의 직위에 따라 얻은 작호를 성 앞에 써서 지칭했다. 그래도 당호가 있는 사람은 인정을 해줘서 신사임당, 임윤지당, 의유당 남씨 등의 당호로 불렸다. 양반 중에 남편이 죽은 사람을 점잖게 표현하려면 김 소사(召史), 이 소사로 불렀지만, 여전히 이름은 알 수 없었다. 혹여라도 어느 기록에선가 사주당이씨의 본명이 밝혀지기를 기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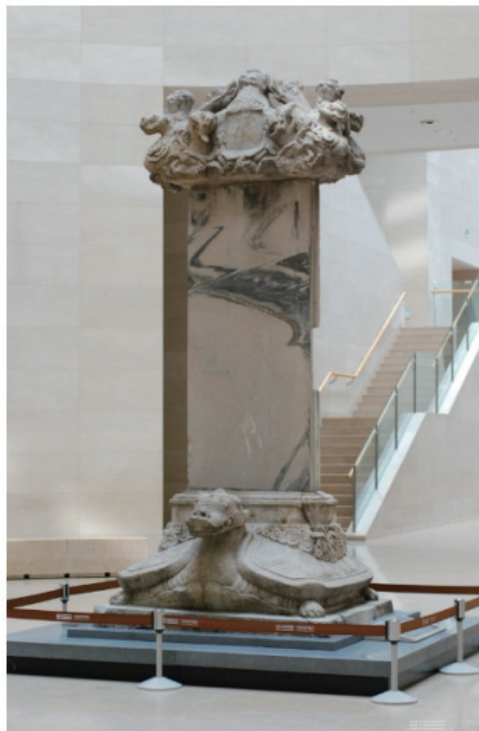
월악산 원랑선사 부도탑과 탑비의 수난

조혁연(충북대)

들어가며 서울 국립중앙박물관을 들어서면 1층 로비에서 보물로 지정된 원랑선사(圓朗禪師) 탑비(塔碑)를 만날 수 있다. 관람객들이 탑비를 배경으로 연신 스마트폰 셔터를 누르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원랑선사는 통일신라 후기의 고승으로 816년에 통화부(通化府)에 태어나 845년에 정식 승려가 되는 구족계를 받았다. 통화부가 지금 어디인지는 분명치 않다.

원랑선사는 856년 신라 사신으로 따라 당나라에 유학, 선종 계열의 위양종(滙仰宗)을 구법하였다. 866년 장보고(張保皋) 무역사절단인 회역사(廻易使)를 따라 귀국한 뒤에는 제천 월악산 자락에 있는 월광사(月光寺)에서 주지로 주석했다.

월광사는 우리역사 문헌에 등장하는 1호 고개인 계립령 북쪽 사면에 위치하고 있다. 통일신라시대 오통의 하나인 북요통(北徭通)은 경주-계립령-한주(지금의 서울)를



▲ 국립중앙박물관 1층 로비에 전시돼 있는 원랑선사 탑비.
출처: 국립중앙박물관.

경유했던, 당시 교통량이 가장 많은 대로였다. 다만, 월광사가 계립령-남한강 경로의 중간에 위치하는 것을 감안할 때 물길로 한주를 오가던 교통로였을 가능성이 높다.

원랑선사는 883년 입적했고, 7년 후인 진성여왕 4년(890)에 그가 머물렀던 월광사에 부도탑 [승탑]과 탑비가 세워졌다. 탑비는 김영(金穎)이 글을 짓고, 승려 순몽(淳夢)이 구양순체로 글씨를 썼다.

원랑선사 부도탑과 탑비는 대한 제국기까지도 원형으로 존재했으나 일제강점기인 1915년 이전에 ‘어떤 이유’로 해체돼 원형을 잃었다. 현재 월광사지(제천시 한수면 송계리 산9)에는 해체된 부도탑 석부재 일부가 1세기 넘게 방치돼 있다.

탑비는 해체된 채 월광사지에 방치돼 있다가 1922년 조선총독부 박물관 정원으로 반출됐고, 현재는 국립중앙박물관 1층 로비에 자리하고 있다. 2023년 제천시는 국립중앙박물관으로부터 원랑선사탑비를 반환받는 작업을 추진했으나 여의치가 않자 복제 탑비를 제작, 의림지박물관에 전시하고 있다.

원랑선사 부도탑과 탑비는 언제, 어떤 이유로 해체돼 원형을 잃은 것일까. 해체된 탑비가 조선총독부박물관으로 반출된 시점은 왜 하필 1922년일까. 그 무거운 탑비를 어떻게 월악산 산중에서 서울 조선총독부 박물관까지 옮길 수 있었을까. 이번 글은 그 궁금증을 덜어보고자 했다.

**원랑선사 부도탑과
탑비는 언제, 왜
파손됐을까**

일본학계는 명치기(1868~1912)에 접어들면서 대륙침략과 지배를 정당화하기 위해 일선동조론(日鮮同祖論)이라는 이데올로기를 만들었다. 이 이론은 조선과 일본은 본래 언어·풍속·신앙 등이 같았고, 따라서 같은 선조를 지닌 혈연관계라는 것이다.

일선동조론은 임나일본부설과 함께 조선을 일본의 일부로 인식토록 하는 논리적 구조를 지니고 있다. 일선동조론은 한반도 답사보다는 『日本書紀』 등 일부 문헌만을 근거로 했기 때문에 한계가 있었다.

1883년 일제는 총독부 중심으로 조선과 만주 일대를 답사, 일선동조론을 보강하고자 했다.

원랑선사탑비 관련 일지	
연도	내용
816년	원랑선사 통화부(通化府) 중정리(仲停里)에서 출생
856년	하정사를 따라 중국으로 구법
866년	회역사를 따라 중국에서 귀국
883년	①원랑선사 입적(헌강왕 9) ②헌강왕 '대보광선(大寶光禪)' 탑명
890년	진성여왕 4년 월광사에 탑비 설치
1900년대	『사탑고적고』 '유탑급비(有塔及碑)'
1909년	대한제국, 關野貞 등 촉탁으로 임명해 문화재 조사(충북은 옥천, 보은만 언급)
1912년	關野貞, 강원-충북-경북 조사(9~12월). 이중 충북은 충주 탑정리 석탑, 개천 사지 조사. 월광사도 이때 조사한 듯.

원랑선사탑비 관련 일지	
연도	내용
1913년	개성과 경기도 이천지역의 문화재 반출 기사화(『매일신보』 3월 20일)
1914년	시정 5주년기념 조선물산공진회 개최 결정(7월)
1915년	①『新世界』 제3권 1호: '비신은 지면에 橫하고 귀부와 이수가 있으니 신라 말기의 승 원랑의 탑비라' ②충주 등 전국에서 대관광단 조직나서 ③조선총독부, 시정5주년을 기념한 조선물산공진회를 경북궁내 미술관과 정원에서 개최(9월 11일) ⑤조선물산공진회 미술관, 조선총독부 박물관으로 명칭 변경해 개관
1916년	①『조선고적도보』 4권(통일신라) 발행 ②'廢月光寺浮屠殘石' 기록 ③조선총독부 「고적물보존규칙」 법령 제정(7월 4일) ④兒玉秀雄 주도로 조선고적조사 5개년 계획 수립
1922년	원랑선사탑비 조선총독부박물관 이관(3월)
1925년	경복궁내 조선총독부 청사 준공(12월)
1930년	월광사지에 이건 표석을 세움(3월 31일)
1989년	월광사지 입구에서 梵字발견
1995년	조선총독부 청사 철거
2005년	①국립중앙박물관 신축 개관 ②원랑선사탑비 박물관 1층 로비로 이전
2007년	국립중앙박물관, 3만8천여장의 유리건판을 분야별로 점진적 공개 시작
2023년	원랑선사 탑비 복제비, 제천 의림박물관에 제막(3월)

그해 일본 육군 참모본부의 밀정 酒匂景信(사코우 사케노부) 중위가 만주 통구지역에서 광개토태왕비를 탁본, 일본으로 가져간 것은 그 연장선에 있었다. 당시 사코우가 광개토태왕비 표면에 석회를 도포, 비문을 번조했다는 '석회도말론'이 국내 학계에 퍼졌다.

일본 학계도 이때를 기점으로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조선 고적조사를 선두에서 이끈 關野貞(세키노 다다시)이 이때 등장한다. 동경제국대학 건축학 조교수였던 관야정은 1902년 6월 학교로부터 조선 고건축 조사를 명령받았다.



▲ 조선 고적조사를 주도한
關野貞(세키노 다다시)

관야정은 그해 6월 27일 동경을 출발해 인천에 도착, 조선 고적 조사에 대한 첫발을 내딛었다. 관야정은 谷井濟—(야쓰이 세이이치)과 栗山俊—(구리야마 준이치) 등과 함께 62일간 한국에 머물면서 경주, 개성, 경성 지역의 고건축을 조사하였다. 이때의 조사 성과는 2년 후인 1904년 동경제국대학공과대학에서 『한국건축조사 보고』(제6호)로 출간됐다.

당시 대한제국 정부는 관야정에게 특권을 주었다. 당시 외무대신 유기환(兪箕煥)은 관야정 일행을 보호토록 전국 군수들에게 훈령했다.

제국 공과대학 조교수 겸 신궁을 세우는 일을 맡은 기사이며 또한 오래된 의 보존회 위원이기도 한 關野貞은 오는 18일부터 한성을 시작하여 강화, 개성, 파주, 부여, 은진, 경주, 합천 등지를 돌며 조사하거늘, 이 여권[護照]과 공문을 가진 바 훈령하니 이 사람이 도경해 오거든 연도의 각 군수들을 비롯한 관리들은 보호하여 주도록 하라.

의정부 찬정 외무대신 임시서리 궁내부 특진관 兪箕煥

-<광무 6년(1902) 7월 16일 외무대신이 훈령 제15호>

1902년 조사는 고건축 위주로 예비조사 성격이 강했다. 1905년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한국을 독점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자 통감부를 설치하고 한국에 대한 실질적인 조사를 준비했다. 1909년 8월 관야정은 통감부 탁지부 건축소 고건축물 조사 촉탁으로 임명되어 다시 고적 조사를 할 기회를 만났다.

이 조사는 1910년 8월 한일병합 이후에는 조선총독부 내무부 지방국 제1과로 인계됐다. 1910년 9월 관야정은 두 번째 고적조사에 나서 신의주에서 부산 방향으로 한반도 주요 문화재와 고건축을 조사했다. 관야정은 이때 충북 옥천 지역의 고건축과 보은 법주사를 조사했으나, 제천과 충주지역은 답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상에서 보듯 관야정은 최소 1910년까지는 월악산 월광사지를 답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다만 정규홍의 『석조문화재 그 수난의 역사』(2007)에 의하면 1900년대 출간된 『사탑고적고』는 월광사지에 대해 탑과 비가 있다는 뜻으로 ‘有塔及碑’라고 기록했다. 이 문장은 원랑선사 부도탑과 탑비의 존재를 처음으로 확인해 준다. 이 문장 하나만으로 1900년대까지 월광사지 원랑선사 부도탑과 탑비가 파손되지 않은 모습으로 존재했는지는 다소 불명확하다. 다만 ‘有塔及碑’라는 표현은 파손된 것이 아닌 완형을 언급했을 가능성이 높다.

관야정 일행은 1912년 11월 5일부터 12월 1일까지 여주 신록사, 고달사지, 충주 탑정리 석탑, 개천사지, 풍기 비로사, 순흥 초함사, 영주 부석사, 예천 개심사지, 문경 화장리 석탑, 상주 달천리 석탑, 상병리 석탑, 의성 고운사 등을 조사했다. 당시 관야정 일행은 춘천, 강릉, 평창, 원주, 충북 제천, 충주, 경북 안동 등의 순으로 이동했다. 『매일신보』 1913년 1월 1일자는 신년호 대담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

9월 16일 동경을 출발하여 조선의 사적조사로 강원도로부터 충청북도 경상북도에 섭(涉)후야 전후 69일간 약 5백리정의 산하를 답사한 공학박사 관야정(關野貞)씨는 어(語)후야 왈(중략) 여주로부터 충주에 出후야자에서 우수한 고대의 유물을 발견하고 죽령을 超후야(하략).

-<『매일신보』 1913년 1월 1일>

이순자의 「일제강점기 고적조사사업 연구」(2007) 논문에 의하면 조선총독부가 1914년에 작성한 『大正元年 朝鮮古蹟調査略報告』서도 ‘오대산 상원사에서 開元13년 刻銘이 있는 조선 최고의 범종을 얻고, 원주·여주·충주에서 다수의 우수한 신라 고려시대의 석탑·석불·석비·석부도를 조사하고’라고 비슷한 내용을 기록했다. ‘大正元年’은 1912년이다.

관야정은 약보고서에 석비·석부도 등이 언급된 것으로 볼 때 당시에 월악산 원랑선사 부도탑과 탑비를 조사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매일신보』 신년대담과 『大正元年 朝鮮古蹟調査略報告』에서 언급하지 않은 것은 월광사가 폐사지가 된 것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

일제는 1913년 상반기부터 전국에 산재한 문화재를 경성으로 옮기기 시작했다. 『매일신보』 3월 20일자는 황해도 개성과 경기도 이천지역 문화재의 역외 반출을 기사화했다.

“開城及利川郡內曠地에 存在ᄃᆞᆫ 古石塔 中 美術的 模範될 優秀ᄃᆞᆫ 逸品이 不尠ᄃᆞᆫ으로 總督府에서 技術員이 出張撰擇後 此를 搬取ᄃᆞᆫ야 考古의 資料로 保存ᄃᆞᆫ고자 目下 取調 中이라더라”

기사 내용 가운데 ‘總督府에서 技術員이 出張撰擇後’라는 대목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문화재 역외 반출에 기술원이 동원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해 조선총독부는 ‘시정5주년기념 조선물산공진회’를 개최할 목적으로 근정전, 경회루 등의 일부만을 남기고 경복궁 내 전각 4천여 칸을 철거했다.

조선총독부는 그렇게 확보한 부지 위에 전시장 용도의 석조건물[미술관]과 가건물 18동을 세웠다. 미술관앞 프랑스식 정원에 각종, 고탑, 부도, 불상 등을 옮겨 놓았고 음악당도 설치했다. 전국의 석탑이 미술관 앞 정원으로 많이 옮겨지면서 일대는 ‘석탑 광장’으로 불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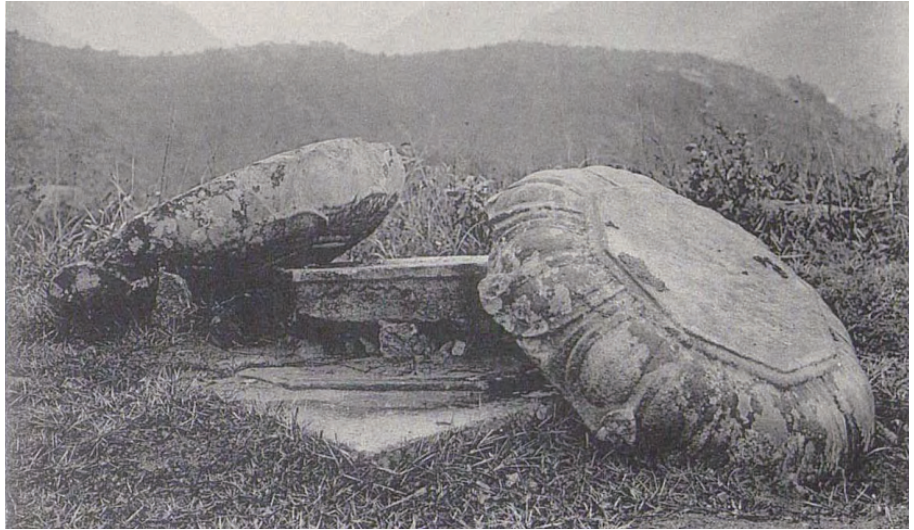
일제는 1915년 9월로 예정된 조선물산공진회, 즉 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앞두고 전국적인 관광단 조직에 나섰다. 여기에는 충주도 포함돼 있었다

충주군청에서는 금회에 공진회를 이용하여 조선인의 자각을 유도하기 위하여 가급적이면 다수의 관람자를 모으기로 하고, 군수를 단장으로 하여 상하 13개의 면장을 모두 위원으로 위촉한 후 12월 이후부터 군민들에게 관람을 권유하였으며, 신청자에게는 여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1개월에 금 1원을 저금하도록 했다. 관광단은 한강을 따라 내려가 경성에서 2박하고 인천을 시찰한 후 돌아오는 길에 수원모범장을 시찰하기로 했다.

-<『매일신보』 1915년 3월 31일>

원랑선사 부도탑과 탑비는 시정5주년기념 조선물산공진회 개최 직전에 해체됐고, 그 과정에서 원형을 잃었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 정황상 원랑선사 부도탑과 탑비를 박람회 석탑 광장으로 반출하기 위해 두 석조물을 부재별로 해체했으나 운반 기술력 부족 등으로 현장에 방치했을 가능성을 추정할 수 있다.

『조선고적도보』(1916)에 해체·파손된 사진이 실리다 1916년 조선총독부는 『조선고적도보』 4권(통일신라)을 발행해 해체돼 널부러져 있는 원랑선사 부도탑 잔석(463쪽)과 원랑선사 탑비 이수(479쪽), 귀부(480쪽), 비신(480쪽) 등 총 4개의 흑백사진을 실었다. 사진을 통해 등 대략 2가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 『조선고적도보』(1916) 4권에 실린 ‘폐월광사지부도잔석’. 기단석이 8각형 모양을 하고 있다.

원랑선사 부도탑과 탑비는 1900년대까지 ‘有塔及碑’로 존재했으나, 1916년 시점에는 모두 해체된 모습으로 고적보도에 실렸다. 이것은 두 석조물이 미상의 집단으로부터 거의 같은 시기에 공격을 받고, 동시에 해체된 것을 의미한다. 두 석조물은 우연히 같은 시점에서 해체된 것이 아닌, 역외 반출을 목적으로 동일한 시점에 해체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해체된 원랑선사 부도탑 잔석을 보면 기단석은 분명히 팔각형 모습을 하고 있다. 이 시기의 선종 계열의 사찰에서는 교종에서 볼 수 없는 팔각원당형 부도탑이 크게 유행했다. 팔각원당형은 글자 그대로 팔각형의 기단석과 원형의 집 모양을 한 부도탑을 의미한다. 원랑선사도 9산 선문의 하나인 성주산문(聖住山門) 낭혜화상(朗慧和尚)의 제자였다.

신라 왕실은 초기부터 왕과 석가모니를 등가화하는 왕즉불(王卽佛) 사상을 옹호했다. 당시 왕족들은 자신들이 석가모니와 같은 반열이라는 의미에서 ‘성골’(聖骨)로 자칭했다. 성골의 ‘성’은 석가모니의 후예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불립문자(不立文字)적인 수행을 강조한 선종은 ‘자심즉불(自心卽佛)’을 전면에 내세웠다. ‘스스로의 마음에도 부처가 있다’는 ‘나도 성불할 수 있다’와 ‘나도 왕이 될 수 있다’는 논리로 단계적으로 발전됐다. 성장하기 시작한 통일신라 하대의 지방호족들은 선종과 풍수지리를 선호했다. 세 집단은 반신라 정서 아래 결집하면서 ‘경주는 지덕(地德)이 다했다’를 말하기 시작했다.

팔각원당형 불도탑이 통일신라 하대에 계립령~남한강 물길中间的 월악산 자락에 위치했다는 것은 두 가지 해석을 낳는다. 9세기말의 진성여왕대에 탑비가 월광사에 건립된 이유는 입적한 원랑선사를 추도(追悼)하기 위함이었다.

진성여왕은 교통로에 접해있는 월광사에 탑비를 건립함으로써 쇠퇴해 가는 신라왕의 권위가 여전히 작동되고 있음을 보여주고자 했을 가능성이 있다. 반면 충주지역 호족이 너무 성장, 선종과 손잡자 이를 자기 세력권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원랑선사 탑비를 건립했을 가능성도 있다.

일제는 왜 원랑선사 탑비를 총독부박물관 으로 옮겼나

1922년 일제는 해체돼 널부러져 있던 원랑선사 부도탑과 탑비 가운데 탑비만을 조선총독부 박물관으로 반출했다. 강점기 36년 기간중 왜 이 시점에서 반출했는가는 또 다른 지적 호기심을 제기한다. 1915년 10월 31일 조선총독부는 조선물산공진회가 폐막되자 공진회 기간 동안 전시공간으로 사용하던 미술관을 박물관으로 용도 변경, 그해 12월에 개관하였다.

조선총독부는 새롭게 개관한 박물관을 위해 문화재 수집 필요성을 강하게 느꼈고, 이를 위해 1916년 4월 6일 고적조사위원회를 구성했다. 그해 7월 4일 ‘고적급유물보존법규’를 조선총독부령 제52호로 제정·공포했다.

고적급유물보존규칙 제2조는 가치 있는 고적 및 유물을 대장에 등록하기 전에 명칭·소재지·현황 등을 조사토록 했다. 그 결과 일제는 고적급유물보존규칙을 통하여 손쉽게 가치 있는 문화재들을 파악하고 조선총독부박물관을 통하여 수집할 수 있었다.

그해 조선총독부 회계국장 兪玉秀雄(고다마 히데오)는 종래 고건축물 위주의 조사 범위를 보다 확대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조사는 반도 전체의 유적 및 유물의 겨우 일부에 지나지 않아 금후에 조사를 할 만한 것이 극히 많았다. 그런데 근년에 토지의 이용이 왕성한 반면 각지의 유적은 날로 함께 훼손되어 가는 경향이 있고, 또 유물의 가치도 점차 세인에게 알려지게 됨으로 인해 종래 그 취체를 엄하게 함에 구애받지 않고 몰래 이를 도굴하니 대략 이를 도굴하여 파는 자가 오늘날 오히려 자취가 끊이지 않는다.

-<『조선회보』 1916년 8월>

그 결과, 5개년 고적조사사업의 장르와 연도별 범위가 확정됐다. 충북은 1916~1920년 조사기간 동안 1차(1916년), 2차(1917년), 3차(1918년) 조사 사업의 대상지에 포함됐다. 이 기간에 원랑선사 부도탑과 탑비 가운데 탑비는 비교적 원형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을 가능성이 높다. 원랑선사 탑비의 조선총독부 박물관으로의 최종적인 반출은 앞서 언급한 대로 1922년 이뤄졌다. 조선총독부는 반출 8년 후인 1930년 3월 31일 월광사지에 ‘月光寺朗禪師大寶禪光塔碑原所, 大正十一年三月朝鮮總督府移建’ 명문의 표석을 세웠다.

그 무거운 것을 어떻게 운반했을까

국립중앙박물관은 원랑선사 탑비가 1922년에 반출되는 모습을 찍은 유리 건판을 20여장 소장하고 있다. 이들 사진과 장준식(현 국원문화재연구원 원장)의 과거 마을춘로 인터뷰 등을 종합하면 당시 반출 과정을 비교적 소상히 복원할 수 있다.



▲ ‘건판 5881’. 출처: 국립중앙박물관

먼저 반출 시기는 1922년 ‘잔설이 남아 있던 무렵’인 것으로 추정된다. 국립중앙박물관이 공개한 ‘건판 5881’ 사진을 보면 당시 폭설이 내렸는지 잔설이 개울가에도 두껍게 남아 있다. 운반부들은 무명옷 바지를 걸어올리고 개울에 들어가서 탐을 견인하고 있다. 이같은 정황으로 미뤄 1922년 이른봄에 원랑선사 탐비를 조선총독부박물관으로 반출한 것으로 보인다.

반출 방법은 이른바 ‘탐끌기’를 사용했다. 탐끌기는 필자가 붙인 표현으로, 해체한 탐을 원하는 목적지까지 끌고 가는 것을 일컫는다. ‘건판 5886’을 보면 운반부들은 앞에서는 귀부 1개, 뒤에서는 탐신 위에 이수를 얹은 또 다른 석부재를 가설한 레일을 이용해 운반하고 있다. 이같은 운반 모습은 다른 건판 사진에서도 공통적으로 발견된다.

동원된 운반부들은 마을 주민들이 아닌, 외부에서 온 전문 인력이다. ‘건판 5879’를 보면 개울가의 9명은 운반작업에 참여하지 않고 불을 피우고 있고 어린 아이도 보인다. 이들은 전문 운반 인력이 아닌 마을주민들로 추정된다. 나머지 인력은 물속에 들어가 레일을 계속 앞으로 깔아가며 두 석부재 덩어리를 운반하고 있다.

운반 기술은 산길에서 하는 것과 개울 물속에서 하는 것이 달랐다. ‘건판 37610’을 보면 땅길 운반은 긴 목재를 미리 닦은 산길 위에 레일용으로 깔고 그 위에 작은 통나무를 우물 井자 모습으로 놓았다. 이후 석부재를 그 작은 통나무 위에 올려놓고 뒤에서 4명이 통나무로 밀고, 앞에서는 20명 정도의 인부가 밧줄로 잡아당겼다. 이때 석부재 밑의 작은 통나무는 바퀴 기능을 했다. 23~24명 정도의 인력은 다른 사진에서도 거의 같게 등장한다. 흰색 무명옷이 아닌 검은 옷은 입을 남성은 현장 지휘자로, 조선총독부에서 파견한 인물일 가능성이 높다. 전술한 바와 같이 조선총독부는 지방 문화재의 역외 반출에 기술원을 동원했다.



▲ ‘건판 5886’. 출처: 국립중앙박물관



▲ '건판 5879(부분 확대)'. 출처: 국립중앙박물관

개울에서의 물길 운반은 땅길보다 다소 복잡했다. '건판 5883'을 보면, 먼저 개울 돌 위에 대형 통나무를 설치, 울퉁불퉁한 표면을 평탄으로 만들었다. 이후 그 위에 직각으로 철제 레일을 부설하고 다시 그 위에 바퀴 기능을 하는 작은 통나무를 깔았다. 두 덩어리의 석부재는 그 작은 통나무 위에 올려져, 앞에서 끌고 뒤에서 미는 방법으로 남한강 선창으로 향했다.



▲ '건판 37610'. 출처: 국립중앙박물관



▲ '건판 5883'(부분 확대)'. 출처: 국립중앙박물관

월악산 월광사지에서 남한강 선창까지의 원랑선사 탑비 운반은 10여일 정도 걸린 것으로 보인다. 1989년 장준식이 반출 현장을 생생하게 지켜봤던 한수면 송계리 90대 촌로를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인터뷰했다.

현지의 탐문 조사시 송계리에 거주하는 石永水 (1989년 당시 90세) 옹이 반출 당시의 상황을 생생하게 들려 주었다. 石翁에 의하면 부도탑의 반출을 위해 선창(東倉, 한수면 북평리)까지 길을 닦아 가면서 丸木을 井字形으로 깔고 그 위에 線路(軌條)를 놓고 탄광에서 사용하는 선반차로 옮기는데 10여 일이 소요되었다고 한다. 부도탑지에서 동쪽 50m 지점에 탑비의 원위치가 있는데, 이곳에는 일본인들이 1922년에 총독부박물관으로 비를 이관하였다는 높이 65cm의 移轉標石이 있다.

-<『충북의 석조미술』(2000)>

2005년 국립중앙박물관은 새 박물관을 지금의 용산에 신축 개관을 했고, 이때 야외에 있던 원랑선사 탑비를 중앙박물관 1층 로비로 옮겼다. 2007년 국립중앙박물관은 원랑선사 탑비 반출 과정이 찍힌 유리건판 사진을 포함해 3만8천여 장을 점진적으로 공개하기 시작했다. 2023년 3월 제천시는 ‘문화재=원적주의’ 원칙에 따라 국립중앙박물관에 원랑선사 탑비 반환을 요구했으나 긍정적인 답변이 나오지 않자 복제 탑비를 제작, 제천 의림박물관에서 제막식을 가졌다.

나가며 지금까지 제천 월광사지 원랑선사 부도탑과 탑비의 수난사를 살펴봤다. 개인적인 소감으로 결말의 글을 대신하고자 한다.

원랑선사 부도탑은 기단석 등 일부의 석부재가 월광사지에 1백년 넘게 방치돼 있다. 부도탑의 원형은 상상 속에만 존재하고 있다. 원랑선사 탑비는 원위치를 이탈하긴 했지만 국립중앙박물관 1층 로비에 원형의 모습으로 전시되고 있다.

현존하는 원랑선사 탑비는 △통일신사 하대의 선종문화 △팔각원당형의 부도탑 △계립령~남한강 물길을 잇는 중세 교통로 △반출 과정을 촬영한 유리건판 등 많은 문화정보를 함유하고 있다.

원랑선사 탐비의 이같은 요소들은 우리나라 고대사, 종교사, 미술사, 그리고 일제강점기 문화재 반출 역사를 연구하는 데 중앙은 물론 지역적으로도 무척 소중한 정보 자산이다.

전술했지만 문화재 행정의 제일 원칙은 ‘문화재=원적주의’다. 문화재는 원래 있던 자리에 있을 때 그 유무형의 문화적 가치가 온전히 드러난다. 국립중앙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원랑선사 탐비는 일제가 지역민의 동의없이 반출한 일종의 강탈 문화재다.

강탈 문화재는 원래 있던 곳으로 돌려주는 것이 국내는 물론 국제적인 추세이다. 얼마 전 대법원은 서산 부석사가 점유하고 있는 고려 불상을 일본에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판결 이유를 국내 절도범들이 대마도에 있는 고려 불상을 몰래 밀반입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몰래 밀반입한 것은 강탈에 준하는 행동으로 볼 수 있다. 넓게 보면 대법원은 ‘문화재=원적주의’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국립중앙박물관이 원랑선사 탐비를 원래 있던 지역으로 반환하지 않는 것은 문화재=원적주의를 부정하는 것이 되고, 그것은 자기모순의 다름이 아니다.

윤형근, 단색(單色) 회화, 단색(丹色) 삶

김기현(미술칼럼니스트)

단색화는 말이 가지는 의미 이상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단색조와 재료의 물성을 근본적으로 파고들어 단순한 형태를 수차례 반복하여 질료를 미학적으로 해석한 것이다. 단색화는 1950~1960년대 유럽과 미국의 화가들 사이에서 모노크롬 화풍의 그림이 유행하며 성장했다. 단색화는 모노크롬, 신 다다이즘, 미니멀 페인팅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며 추상미술을 이끌었다.

한국의 단색화는 1960년대 후반 서서히 나타나 1970년대 초반에 자리를 잡았다. 평론가에 따라 다소의 차이는 보이지만 한국의 단색화는 타자적 시선에 의해 발견되었다는 의견이 크다. ‘한국의 5인 작가 다섯 가지 흰색’을 기획한 일본의 평론가 나가하라 유스케는 전시 서문에 이런 말을 사용했다. “색채에 대한 관심의 한 표명으로써 반(反)색채주의가 아니라 그들은 회화에서 색채 이외의 다른 것에 관심을 두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단색화에 대한 우리 내부의 시각 역시 다르지 않다. 백색은 단순한 빛깔 이상의 것으로 백색이기 이전에 백이라고 하는 하나의 우주라고 했다. 한국적 시각의 해석이다.



▲ 윤형근

1970년대 한국의 단색화는 운동으로 보아야 한다. 전위적 행위와 질서를 부정한 미술 내부의 변화운동이기 때문이다. 이념의 색이 분명하지 않다는 것과 조직적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운동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견도 있다. 단색화 계열의 화가들이 유럽의 단색화인 모노크롬과 차별화하기 위해 ‘Korean Monochrome Painting’이 아닌 ‘Dansaekhwa’로 표기한 것은 나름대로 독자성과 주체성을 담보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한국 단색화는 이렇게 탄생하게 되었다.

반면 한국의 단색화는 근, 현대 미술을 견인한 미술계 주류의 화가들 중에도 모노크롬(단색) 그림을 그리는 화가들이 있었다. 그들은 한국의 단색 그림이 미술운동으로 정치적 의도가 강하여 자신들이 단색화가로 분류되는 것을 원치 않았다. 미술계 안에서의 치열한 제도권 우위 경쟁은 미술계 혼란의 시기이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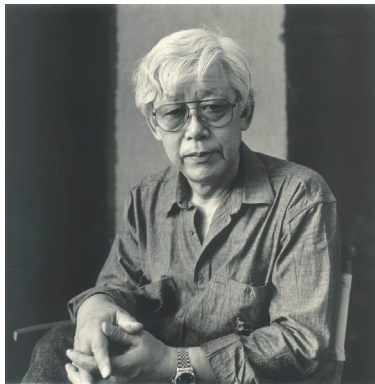
2013년 11월 15일 단색화의 거장 박서보 화백이 타계했다. 그는 1931년 태생의 한국 현대 미술계의 대표적인 화가라 하여도 부족함이 없다. 적극적 성격의 소유자인 그는 대한민국미술대전의 모순을 온몸으로 거부하였다. 미술계 권력에 대항하여 낙선 작품전을 여는 등 기존 미술계의 변화에 큰 역할을 한 미술가이다. 그가 활동하던 한국 미술계 내부에는 추악하고 부조리한 관행이 자행되던 시절이었다. 그는 이러한 모순을 부정하며 동료 화가들과 아방가르드를 출발시키고 표방하였다. 그러나 당시의 아방가르드는 미술의 목적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미술로 정치를 하거나 미술 그룹을 만들어 권력을 행사하기보다는 개인의 작품 활동을 위한 것이 전부였다. 박서보 화백은 2022년 큰돈을 들고 광주 비엔날레 조직위원회에 박서보 미술상을 제안했다. 하지만 광주비엔날레의 국제적 위상과 오월정신, 광주정신을 매판하는 행위라는 지역예술계의 비판을 받고 2022년 1회 시상한 이후 폐지되었다. 광주지역 예술계는 박서보 화백이 1960~70년대에 한국 모더니즘 미술의 상징적 대표이지만 1960년 4·19혁명에 문화 권력의 기회를 엿보고 박정희 정부에 순응하며 기록화 사업에 활발히 가담했다는 것을 이유로 들면서 박서보 미술상을 반대하였다. 또한 1970년대 유신정권 시절 관변미술계의 대표자로서 1980년대 민주화운동을 외면하고

개인의 출세와 권력 지향과 영달을 위해 살아왔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시대에 반하거나 순응하는 것은 예술가의 자유이다. 시대를 읽는 것 또한 예술가의 정신세계에서는 창작이자 자유영혼이다. 광주의 미술계는 박서보의 정신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박서보

동세대 화가가 있다. 1928년 청주 청원 출생의 윤형근이다. 광주에서 1980년 5월18일 신군부 독재에 대항하여 계엄령철폐, 신군부 퇴진을 요구하며 거대한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다. 위기의 군부는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군대를 투입해 시위를 무자비하게 진압 했다. 윤형근은 “예술은 똥이여, 사람들이 픽픽 죽어 가는데 예술이 다 뭐 말라 죽은 거여.”하며 시대의 고통을 토로했다. 윤형근의 그림에서 기둥들이 살아났다. 아래로 내리 그어진 굵은 선이 검은 기둥으로 스러져 가고 있었다. “땅 위에 똑 바로 서 있으려 해도 그러한 힘이 남아 있지 않은, 피 흘리며 기대어 쓰러지는 인간 군상”들이라고 표현했다.¹⁾ 윤형근은 당시의 기억과 기록을 그림으로 표현하였다.²⁾ 그 그림에 ‘1980. 5’라고 기록했다. 1980년에 그려진 「청다색」이다. 광주의 무력 진압을 간접 경험한 화가로서 무너져 내리는 심장의 고통을 견디기 힘들었을 것이다.



▲ 윤형근



▲ 다색 Burnt Umber, 1980

윤형근이 뒤늦게나마 그림에 전념할 수 있었던 것도 말 뿐이 아닌 행동으로 저항을 한 사건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서울대학 입학 후 동맹휴학과 반정부 시위 참가로 재적을 당하게 되는 사건은 시작에 불과했다. 당시 서울대 교수이던 김환기도 해직을 당해 솔로 보내다 홍익대로 옮긴다. 그는 1950년 6·25전쟁 초기 보도연맹 사건에 휘말려 총살 직전까지 갔다가 간신히 탈출하여 살아남았다. 그리고 1956년에는 전쟁 중 서울에서 부역했다는 이유로 6개월간 서대문형무소에서 복역하는 등 정치적인 이유로 4번이나 곤욕을 치렀다. 한국 전쟁 이후 미군들의 초상을 그리며 생활할 당시 서울에 남아있던 인민군의 요청으로 스탈린과 김일성의 초상을 그린 것이 강제 부역을 한 것으로 문제가 되기도 했다. 이처럼 그는 시대의 고통을 직접 겪으며 질곡의 삶을 살아왔다.

1) 윤형근의 기록, 윤형근, 박경미 외 기록, PKM북스, 2021

2)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울분을 느껴 그린 그림. 울트라마린(ultramarine)과 번트 엄버(burnt umber)를 섞어 먹빛으로 표현한 윤형근만의 단색기법이 특징이다.

윤형근은 외할아버지의 서예, 사군자를 즐긴 아버지의 영향을 혈통으로 내려받았다. 그림을 좋아했으나 그림 그리는 일을 직업으로 하기에는 반대가 만만치 않았다. 미원제2공립심상학교, 현 미원초등학교에서 소년기를 보내고 청주상고에 진학했다. 지난 여름호에서 다루었던 화가 안승각 선생이 청주상고에 근무하던 때이다. 학생 윤형근은 미술부에 선발되어 제자가 된다. 1945년 해방이 되면서 안승각 선생은 청주사범학교로 옮기고 스승의 권유로 청주사범학교 6개월 과정의 사제 인연은 계속되었다. 스승은 일본유학을 권유하지만, 부모의 강력한 반대로 좌절된다. 부모의 뜻에 따라 은행원이 됐으나 적성에 맞지 않는 일이었고 틈나는 대로 출가를 결심한다. 아버지와 형이 윤형근의 장래를 이야기하는 사이 집을 나와 서울의 누님댁으로 향했다.

서울에서 살림살이는 녹록치 않았다. 미술대학 준비를 위한 여러 일을 했다. 그는 해방 후 1947년에 설립된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1회 입학생을 뽑는 시험에 응시해 합격한다. 수화 김환기와 인연의 시작은 입학시험 감독관이 당시 서울대 교수 김환기였고 윤형근을 크게 신뢰하였다. 동맹 휴학 반정부 시위로 서울대학 재적 후 전쟁이 끝나 복학을 원했으나 서울대학은 그를 받아주지 않았다. 미술을 향한 의지는 그를 홍익대학으로 편입한다. 홍익대로 옮길 당시 교수로 제직하던 김환기의 도움이 작용을 한 것이다. 서울대에서 퇴학당한 윤형근과 해직된 김환기 사이에 많은 공감대가 생겼을 것이다. 이후 윤형근은 스승 김환기의 집에 드나들게 되었다. 이때 윤형근을 관심 있게 본 사람이 김환기의 장녀 김영숙이다. 윤형근과 김영숙은 홍익대 서양화과를 졸업한다. 윤형근은 고향인 청주로 내려와 청주여자고등학교 미술교사를 지냈지만 이승만 정권에 대한 반정부 발언으로 부당한 발령해고를 받고 사직하게 된다. 윤형근은 그 뒤 서울로 올라와 1960년 김영숙과 결혼을 하고 김환기의 사위가 된다. 고학으로 대학을 다닌 윤형근은 어려운 생계를 이어나가다 1973년 숙명여고 미술교사로 부임한다.

그의 작품세계를 바꾼 결정적 저항의 계기는 숙명여고에서 미술교사로 지내던 시기였다. 그는 1973년 한 학생의 부정입학 사실을 항의했다가 황당하게 반공법으로 투옥됐다. 부정입학 학생이 중앙정보부장 자금을 대는 재벌집 딸이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죄명은 반공법이다. 윤형근이 자주 쓰고 다니던 모자가 레닌이 즐겨 사용한 것과 같다는 이유이다. 이 사건 이후 그의 그림은 초기에 보였던 다양한 색채가 사라지고 청색과 암갈색이 섞인 어둡고 무거운 검은색으로 변했다. 감옥에서 6개월을 보내고 출감 후 10년을 방황한다. 화가로 그림에 인생을 건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기도 하지만 고통을 감내하는 힘들고 긴 시간은 그림자처럼 붙어 있었다.

윤형근은 40대 중반부터 색이 사라진 엄버와 블루 컬러 작업을 한다. 그는 일기에 다음과 같이 썼다. “1973년부터 내 그림이 확 달라진 것은 서대문교도소에서 나와 화감에 한 것이 계기였지. 그 전에는 색을 썼었는데 색채가 싫어졌고 화려한 것이 싫어 그림이 검어진 것이지. 욕을 하면서 독기를 뿜어낸 것이지.”³⁾ 미국 미니멀리즘의 대표작가 도널드 저드가 “미술이 뭘까?”라고 묻자 윤형근은 “심심한 거요”라고 대답했다. 심심하다는 의미 해석에 제사음식의 심심한 맛, 목가구의 간결한 미학, 한국의 오래된 옷 등이 도구가 되었다.

윤형근의 시대정신은 변했다. 공안시절 끊임없이 그를 감시하는 검은 그림자의 사람들이 늘 주변에 있었다. 본인 뿐 아니라 아내 김영숙도 사찰의 대상이 되었다.(1979년 8월 21일 일기) 이러한 현실 상황은 그를 분노케 했고 그림으로 나타냈다. 그는 1973년 이후 채색 그림을 그리지 않았다. 어두운 단색조의 그림들을 말년까지 그렸다. 청다색 작품과 다색작품들은 검은 대비에 화면을 모두 채우며 쌓은 색 층의 저쪽 세계와 같은 암울이 드러나 있다. 유화 기름으로 물감의 강약으로 표현한 기법은 수묵의 번지는 효과와 먹의 견고함과 향을 느끼게 한다. “잔소리 싹 뻗 외마디 소리를 지른다”는 그의 그림은 시대정신이다. 그가 그의 그림에 명명한 작품이 천지문이다. 천지문,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문으로 그 색은 우리의 오랜 가옥에 검게 그을린 대들보나 기둥에서 찾았다. 그리고 썩어 들어가는 고목과 오랜 풍상의 흙은 그의 작업에 영감의 대상이었다. 블루와 엄버는 둘이 영겨 윤형근만의 색을 얻어냈다. “나는 언제부터 흙 빛깔이 좋아졌는지 잘 기억은 안 난다. 또 나무 빛깔도 그렇다. 또 돌의 빛깔도 그렇다. 자연경치의 빛깔도 겨울의 자연빛깔이 좋다. 이 모두가 인조가 아닌 자연의 빛깔이, 그중에서도 죽은 자연의 빛깔이 좋다. 퇴색한 것 같은 탈색한 것은 같은 그런 빛깔 말이다.” 그의 일기는 검은 색 이야기를 미학적으로 함축하고 있는 기록이다. 화폭의 선택도 그는 달랐다. 윤형근은 캔버스를 싫어하는 이유가 그 싱싱한 마포에 젼소⁴⁾로 고유의 재질을 덮어 버린 것이 싫다는 작가의 미술 재료학을 이야기하기도 했다. “나는 언제부터인가 면지와 마지를 화포로 쓰고 있다. 그 재질감이나 자연적인 색감에 호감이 가서이다. 언제 보아도 이것들의 포근하고 따뜻한 소박미는 물리지가 않는다. 종이도 그렇다. 서양의 종이보다 손으로 만든 한지에 정이 간다. 이 모두가 자연스러움 즉 소박한 데서 오는 것 같다.”⁵⁾

윤형근의 표현기법은 천(캔버스) 위에 물감을 여러 번의 겹쳐 두께와 번짐이라 했다. 붓이 지나간 흔적은 캔버스 안에서 캔버스만이 가지는 공간을 구성하여 표현하였다. 물감이 지나가 그려진 곳과 그려지지 않은 경계는 윤형근의 단색

3) 윤형근의 기록, 윤형근, 박경미 외 기록, PKM북스, 2021

4) 물감의 접착력 강화를 위한 기초 안료. 석고와 아교혼합재료, 아연을 쓰기도 함

경지이자 시대정신이 배어있는 견고한 작업이다. 한국적 환경에서 찾아낸 모티브의 출현은 그가 원하는 색을 나타내려는 청다색으로 청다색은 한 번의 칠 아닌 반복적 행위와 행동이 내재된 작품이다. 자연의 의미와 인위적 제작 의도는 비움과 채움의 경계를 넘나드는 선의 도량이다. 결국 자아를 찾기 위한 반복의 자기수양의 과정에서 오히려 나를 찾는 행위이다. 검정칠과 백색 사이의 암갈색의 은은한 경계는 반복적인 칠 행위를 통해 색이 자연스럽게 캔버스에 스며들게 하는 기법이다. 이후는 세월의 작업이다. 우리의 가옥과 오랜 수목이 그 색을 내기 위해 필요한 시간처럼 화가의 캔버스 역시 처음의 캔버스가 아닌 시간을 머금은 황갈색을 그는 문(門)이라 보았다. 그림에서 물감이 있는 공간과 비어있는 공간의 경계에는 비우기 위한 행위 개념을 나타낸다. 미술의 시공은 화가의 작업과 화가 이후의 세계이다. 최초의 빛이 스며들어 최후의 빛으로 가득 차게 만드는 여백의 공간은 화가의 공간이 아닌 것이다. 관람자의 시각으로 엄버의 땅과 블루의 하늘을 볼 수 있고 천지와 그를 통하는 문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다.



▲ Umber, 1970



▲ 청다색, 1975

5) 윤형근의 기록, 윤형근, 박경미 외 기록, PKM북스, 2021

후대에서 경험할 단색의 의미는 여타의 단색화와는 다르다. 윤형근의 작품경향은 분명 단색(單色)으로 그려진 단색화풍이다. 거기에 덧붙여 윤형근이 살아온 시대정신과 저항의 예술성은 그의 내면을 불사르는 붉은색, 단색(丹色)이다. 윤형근의 그림에는 우리시대의 절망스런 야만의 정권에 대한 도전이고 혼란기 현대를 살고있던 한 화가의 고뇌가 고스란히 표현된 작품이다. 그가 가고 싶어했던 우리사회의 진정성은 무엇이었을까? 윤형근이 그의 작품의 전환이 된 것은 1973년 제2회 개인전(1973. 5. 18. ~ 5. 24. 명동화랑)이다. 그가 발표한 “茶-靑” 회화 시리즈는 수직의 긴장과 직립이라는 굳건한 작업으로 평한다. 생명의 원형, 그것들은 민중의 일반적인 관념의 기둥 숲에 관점을 두고 평가되었다. 윤형근은 색의 반복을 통해 제작된 거대한 검은 기둥의 작품은 흔들리지 않는 민족적 정서로 표현했다. 2018년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윤형근의 전시가 열린다. 전시 기획자 김인혜 연구사는 도록 서문에 이렇게 썼다.

“이 수수께끼 같은 도덕경의 첫 구절을 표현해낸 것이 윤형근의 그림인지도 모른다. 검은 ‘현(玄)’ 보다도 더 한층 파악하기 어려운 근원으로부터, 이 세상 온갖 ‘묘(妙)’가 나오는 문(門)! [...] 하늘과 땅이 함께 녹아든 현묘한 검은 물성(物性) 사이로, 비어 있는 동시에 가득 찬 공간이 존재한다. 근원을 향한 문(門) 앞에서, 우리는 우리가 지금껏 알지 못했던 어떤 또 다른 차원의 존재에 대해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⁶⁾

전시 서문에서 윤형근 화백이 색채를 버리고 단색의 경험을 관통하여 작가 내면인 한국인의 끓는 피, 손짓이라는 것으로 재해석 할 수 있다. “한국적인 것도 의식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몸 안에 도는 한국인의 피, 한국인의 손짓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⁷⁾라고 기사로 표현한 것은 윤형근이 그의 작품이 민족적 정서의 원류가 한국인이라는 것을 이야기 하고 있다.



▲ Burnt Umber & Ultramarine, 1987~1989



▲ Burnt Umber Ultra Marine, 1991

윤형근의 작품들은 한지나 캔버스, 마포, 보드 등 여러 바탕 재료의 사용으로 다양성과 실험성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1960년대 제작한 작품은 다양한 색감을 다양하고 풍부하게 사용하였다. 오방정색을 이용해 유채 물감의 질감표현으로 두껍게 표현하는 기법이다. 그리고 이 기법과 색채는 토기시대와 같은 원초적 세계로 해석되었다. 1973년 두 번째 전시 이후 사라진 색은 무색의 색안에서의 다색이다. 윤형근의 1980년대 작품들과 여러 방식의 성격으로 나타나 변화의 성향을 보인다. 시대 저항의 정신이 온몸에 배어 있는 화가는 작품으로 내면의 불타는 저항을 토해냈다.

우리는 언제나 진정한 창의성을 가질까.

- 진정한 자유없이는 창의성이란 없다.
- 순수한 인간이 되지 않고서는 창의성은 있을 수 없다.
- 관료적인 것은 암흑세계다.
- 관료적이란 인간 말살의 제도다.
- 관료적인 것은 부정의 온상이다.⁸⁾

6) 국립현대미술관, 『윤형근 = Yun Hyong-keun』, 2018, 국립현대미술관. p.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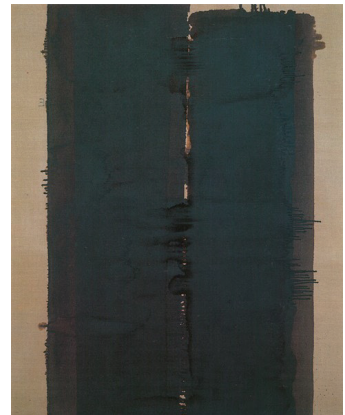
7) 양성희, 「모노크롬운동 선도 윤형근展」, 『문화일보』, 1999. 3. 26.

8) 윤형근의 기록, 윤형근, 박경미 외 기록, PKM북스, 2021

1980년 2월 25일 기록한 윤형근의 일기에는 그의 분노와 내면의 불타는 분노를 가감없이 드러내고 있다. 그해 3월 29일의 일기에 “민족성이 갈갈이 찢기고, 남북으로 잘려서 이념과 체제를 달리한 불행한 민족이오, 언제 통일이 될지 문제가 많다.”라며 우리의 민족에 대한 미래의 고민을 화가로서의 냉혹하게 표현하였다. 그의 작품은 1990년대 이후 다소 변화를 가져오며 변화를 했다는 평가를 비평가들에게서 받는다. 미적인 것을 판단하는 능력 곧 취미 비판이라 한 칸트의 숭고미로 해석해 보면 경험의 중요성이다. 그가 표현한 단색 회화의 면은 더욱 단순해지고 색채는 검은색이라는 색의 범주에서 순수와 감정을 포괄한 단색이다. 윤형근의 기록에서 알 수 있듯이 그는 점점 자연에 대한 느낌의 기록으로 전환이 되며 순수성의 시대로 작업을 했다. 윤형근의 작업은 민중에서 자연의 귀화로 보이며 단순한 추상주의에 편승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이 시대 미술이 주목해야 할 미학정신이다.



▲ Burnt Umber Ultramarine, 1991



▲ Umber Blue, 1991

충북학연구소 소식

**2023년 제2차
충북학포럼
“탄생 100주년
홍구범의 삶과
문학” 개최**

충북학연구소에서는 지난 11월 24일(금) 오후 2시에 충주 세계무술박물관 2층 다목적강당에서 2023년 제2차 충북학포럼을 개최하였다. 이번 포럼은 소설가 홍구범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여 충북학연구소, 충북연구원, 충주문화원부설 충주학연구소가 공동으로 개최하였다.



▲ 2023년 제2차 충북학포럼 홍구범의 삶과 문학 종합토론

홍구범은 1923년 충북 증원군(현재 충주시) 신니면 원평리에서 태어나 용원 국민학교를 졸업하고 서울 중등학교에 입학하였다. 이후 중퇴하고 18세 때 김동리를 찾아가 소설을 배웠다. 1947년 단편소설 「봄이 오면」으로 등단하여 ‘화제작 제조기’라 불릴 만큼 활발히 활동하였다. 그러던 중 한국전쟁 당시 납북되어 생사를 알 수 없이 오랫동안 묻혀 있었다.

충북학연구소에서는 올 초부터 이 포럼을 준비하여 소설 「초막의 낮」, 「불그림자」 제2회, 산문 「미륵 잇는 마을」, 신간평 「방기환 저 손목잡고」 등 홍구범의 글을 새로 발굴하였다. 충남대학교 김정숙 교수 역시 이종문 계명대 명예교수의 도움을 받아 소설 「소녀 황진이」를 발굴하였다. 또,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여 <청년 작가 홍구범을 찾아서> 영상을 제작하였다.

이러한 준비를 거쳐 열린 이번 포럼은 11월 24일 오후 2시 개회식을 시작으로 모두 3부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1부는 개회식, <청년 작가 홍구범을 찾아서> 영상 상영, 권희돈 청주대학교 명예교수의 기조 강연으로 진행되었다. 2부는 ‘홍구범의 생애와 작품, 빈자리 메우기’란 제목으로 충북학연구소 임기현 소장이, ‘새로 발굴된 홍구범의 「少女 黃眞伊」에 관한 소고(小考)’라 제목으로 충남대학교 김정숙 교수가 발제하였다. 3부는 종합토론으로 김덕근 문학평론가가 좌장을 맡고, 안미영 건국대학교 교수 · 윤정용 고려대학교 초빙교수 · 소설가 박혜지가 토론자로, 객석의 참석자들까지 토론에 참여하였다.

이번 포럼은 잊혀진 홍구범의 생애와 문학적 빈공간을 메우고 그 가치를 재조명하여, 충주와 충북 나아가 한국근대문학사로 불러내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아울러 이



▲ 2023년 제2차 충북학포럼 홍구범의 삶과 문학 기념촬영

자리에서는 미발견 작품 발굴과 새로운 전집 발간, 생가터 매입과 홍구범 문학비 주변 정비, 작품 배경지가 된 주덕양조장의 보존과 활용, 문학제 추진 등 앞으로의 과제에 대한 의견도 다양하게 제시되었다.

이번 포럼은 유튜브 <충북학연구소> 채널에서 볼 수 있다.



The Chungbuk Studies Institute

충북의 정체성 구현과 지역문화 창달을 선도합니다



주소 충북 청주시 상당구 대성로 102-1

전화 043.220.1161~2

홈페이지 <http://csi.cri.re.kr>